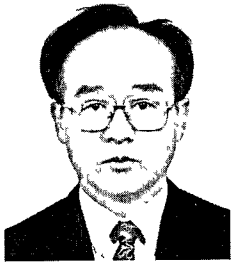


痿, 厥, 麻木에 대하여

- 실용중의 내과학/상해과학기술판사 版에서 번역 -

裴 貞 道



一. 痿症

가. 定意

痿症은 肢體의 筋脈이 弛緩되고 手足이 痿軟無力해지는 一種의 病證인데, 下肢의 隨意運動과 行走가 不能한 것이 많이 보이므로 痿躄이라 칭한다 그 發병원인, 部位에 따라서 임상표현이 不同하므로 皮痿, 肌痿, 筋痿, 肉痿, 骨痿가 있어 五痿라 칭한다. 溫熱病中 혹 熱病後期에 많이 보이는데, 邪熱이 陰液을 灼傷하여 筋脈이 濡養을 받지 못하여, 혹 溫熱浸淫으로 因하여 筋脈肌肉이 弛緩하여 쓰지 못하며 혹 體虛久病으로 因하여 肝腎虧虛 精血不足해져서 肌肉筋骨을 濡養하지 못하거나, 혹 瘀阻脈絡 등으로 생긴다

나. 歷史沿革

痿證과 관련된 기록은 內經의 「素門 痿論」에 처음 나타나는데 痿證에 대해 專篇에서 토론된다 該篇에서 痿證의 病因 病機 證候分類와 有關治療方法이 충분히 論述되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痿證의 主要原因은 內熱傷津 宗筋失潤이고 痿軟弛緩에 이르러 痿證이 나타난다 아울러 肺主皮毛 心主血脈 肝主筋膜 脾主肌肉 腎主骨髓 等 소속관계를 근거로 “痿躄” “脈痿” “筋痿” “肉痿” “骨痿” 等 不同한 명칭을 내놓는다. “治痿獨取陽明” 等의 主要法則도 나타나고 아울러 “各補其榮而通其愈 調其虛實 和其逆順” 等 刺針治療의 痿證의 原則도 나와 있다 「內經」의 有關篇章에 痿證과 歲運의 關係 및 病因진단 方面의 논술이 많이 나타난다

언급한 理論原則이 지금도 임상실천이나 指導에 유효하다 漢, 張仲景의 「傷寒論」이 論述하기를 “傷寒에 吐下한 뒤에 다시 發汗시키면 陰陽氣血이 俱虛해져서 筋脈을 濡養하지 못하여 오래되면 痿가 된다” 하였다. 「金匱要略, 中風 歷節病脈症并治第五」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에 또 나오기를 “鹹則傷骨 骨傷則痿”라 기재되어 있다 誤治分別과 過食鹹味 등에 관한 토론 病因 등이 나와 있다

隨, 巢元方は 外感內傷 양방면의 분석을 따라 病因을 명확히 밝혔다 「諸病源候論 風身體手足不隨候」에 논술된 그 主因은 外受風邪, 內由脾胃虧虛이고 아울러 장부경락 이론을 운용하여 그 병리를 밝혔다. 巢氏가 이르되 “手足不隨는 體虛하여 腠理가 열려 風氣가 비위경락을 傷하는 연고이다 죽태음은 脾經이므로 脾와 胃가 습하고, 죽양명은 胃經이고 胃는 水穀之海가 된다 脾는 一身의 肌肉을 主하는데 胃가 水穀之氣를 소화시켜 身體四肢를 養한다. 脾氣가 弱하면 곧 肌肉이 虛해서 風邪의 所浸을 받는고로 胃가 水穀之氣를 通行하지 못하여 四肢肌肉이 稟受한바가 없기에 이른다.

風邪가 경락에 있으면 陽經을 搏하여 氣의 흐름이 늦어지고 관련된 肌가 緩縱하는고로 身體手足이 不隨하게 된다.”

以上 보이는 바가 秦漢에서 隨에 이르는 시기에 본병에 관한 병인 병리 治則 등에 관한 이론적 기초의 초보가 이뤄진 것이다

金元이래 본병에 대한 인식이 進一步 하였으니 특별히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등의 醫家가 病機 證候辨別 등에 관해 독자적 견해를 내놓았는데 治療와 方藥에서도 더욱 풍부하였다

장자화의 「儒門事親 卷一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에 “風, 痺, 痿, 厥”의 四證 감별이 나와 있고 “夫 四末之疾 動而或痙者, 爲風, 不仁或痛者 爲痺, 弱而不用者 爲痿, 逆而寒熱者 爲厥 此其狀未嘗同也, 故其本原 又復大異”라 하였으니 風, 痺, 痿, 厥 四者の 辨析을 몇마디 말로 정확히 표현하였다 장씨는 火熱의 발병상의 중요성을 十分 강조하여 “大抵痿之爲病 皆因客熱而成 故痿臂屬肺, 脈痿屬心 筋痿屬肝 肉痿屬脾 骨痿屬腎 總因肺受火熱葉焦之故 相傳于四臟 痿病成矣”라 하였다 따로 명확히 밝힌바 “痿病無寒”의 논점에서 논하기를 治痿와 治痺가 크게 다름을 “若痿作寒治 是不刀而殺之也”라 하였다 장씨의 「儒門事親」에 맨먼저 나타난 痿病의 醫案기록과 관련된 토론 분석은 痿證연구의 비교적 이론 문헌중의 하나이다

元, 李東垣의 濕熱에서 오는痿에 대한 논술도 방대하니 습열에서 오는痿를 分別하여 肺金受邪 暑傷胃氣에 濕熱이 肝腎에 乘하는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清燥湯 등의 方劑를 隨症加減하였다.

元, 朱丹溪의 「丹溪心法」에는 별도로 痿躄을 논술한 篇이 있으니 濕熱 濕痰 氣虛 血虛 瘀血 등 5가지 증후로 나누었고 아울러 다른 증후와 상관되는 치법, 구체적 方藥을 고안하였으니, 濕痰에는 이진탕 加 창백출 황백 황금 죽력 강즙 ; 氣虛에는 사군자탕 加 황금 황백 황금 ; 血虛에는 사물탕 加 창출 황백煎으로 補陰丸을 먹고 ; 또 食積 死血에는 蓼朮四物湯 加 황백 등이다.

이외에 痿證치료에 호감환 등 名方이 朱氏가 창방한 것이다

上術한 證治經驗은 후세에 痿證의 辨證論治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明, 王肯堂의 「證治準繩」에 논술한 五勞 五志 六淫이 각각 傷하게 한 臟과 습하여 이뤄진 皮肉 肺筋骨에 이르러 五痿를 이룬다하여 情志素因을 重視한다. 대응하는 治法에 治痿에 생리 병리관계에 따라 獨取陽明하는 법을 발전시켰다. 언급한바처럼 時期와 病因에 처한 학술적 토론을 비교적 깊이 하였다.

針과 痿證, 主火之說 같이 「景岳全書 雜證 痿證」에 이르기를 痿證은 “元氣敗傷 則精虛不能灌溉 血虛不能營養者 亦不少矣 若概從火論, 則恐眞陽虧敗 及土衰水涸者 有不能堪 故當酌寒熱之淡深 審虛實之緩急 以施治療 庶得治痿之全” 하고 다른이가 치법으로 除濕熱法外에 陰虛와 熱에 去火滋陰法을 내 놓았으니 “만약 절대로 無火證에 水虧于腎 血虧于肝 등을 지적하여 涼藥을 쓰는 것은 生氣를 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하여서 후세에 治痿에 대한 관점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樓英의 「醫學綱目」에는 五行生克理論에 따라 “瀉南補北”의 치료大法을 개발하였다.

王綸의 「明醫雜著」에는 痿症을 風으로 보고 치료하지 말라 하였다.

李中梓의 「醫宗必讀」에는 五臟之熱로 인한 痿證과 挾濕熱 濕痰 血虛 氣虛 氣血俱虛 食積 死血 實而有積 腎肝下虛 등을 分別하였고 主治方藥도 分別 제시하여 치료학적 내용을 대대적으로 충실하게 하였다

清 陳士鐸의 「石室秘錄」에는 胃火熾盛을 重論하여 痿證의 主因으로 논하고 補氣 益血 滋腎水降胃火 清脾胃之熱 등 방법을 제시하고 적지않은 새로운 방제를 제시하였다.

葉天士는 臟腑상관관계를 중요시하고 肝腎肺胃 四經이 발병과 치료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肝腎精血의 상호영향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였다

종합해보면 明清이래로 본병에 대한 病因 病機에 대한 인식과 治法이 크게 발전하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였으니 火熱 濕熱 濕痰 氣血虧損 瘀血情志失調 등이 병에 이르는 중요한 작용이다 적지않은 醫家들이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출발한 바를 따라 滋陰清火 清肺潤燥 補益脾胃 調補肝腎 活血化瘀 등 方藥과 변증논치의 내용이 풍부하게 되었으니 임상응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방이래 각지에서 임상연구와 치료방법과 수단이 증가하고 治痿의 理法方藥에 대하여 현대의학이 진단하는 다발성신경염 重症肌無力 등 질병치료과정에서 얻은 효과로 본병의 이론연구와 임상경험 등이 전과 비교하여 풍부하게 提高되었다.

다. 範圍

西醫의 多發性神經炎 急性脊髓炎 進行性肌萎縮 重症肌無力 週期性麻痺 肌營養不良症 癱病性癱瘓과 기타 中樞神經系統感染并發軟癱의 後遺症 등의 임상표현이 頗相 유사하니 본병의 변증시치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라. 病因病機

歷代醫家の 有關論述에 근거하여 임상경험과 結合한 痿證의 주요한 病因 病機는 아래와 같다

一 熱傷肺津

溫熱之邪를 感受하여 肺가 熱로 熏灼된 것이다.

「素問 痿論」에는 “肺熱葉焦 則皮毛虛弱急薄 著則生痿躄也”라 하였고 「儒問事親 卷一」에 이르되 “痿之爲狀· …· 總由肺受火熱葉焦之故, 相傳于四肢 痿病成矣”

다른 方面으로 「醫宗必讀, 痿」에는 “五臟之熱火熏蒸 則金被克而肺熱葉焦 故致疾有五臟之殊”라고 五臟病熱이 肺에 누적됨을 설명하였다 이런 類의 痿證은 溫熱病中이나 病後에 多發한다

燥邪傷肺는 津液이 고갈하여 점차 痿로 되는 원인의 일종이다 「素門玄機原病式」에 이르되 “手足이 痿弱하여 收持하지 못함은 肺金이 본래 燥한것에서 연유하며 燥가 病이 되어 血液이 衰少해져서 百骸를 營養하지 못하는 것이다”, 「病因脈治」에 이르기를 “燥熱이 痿軟하는 원인은 뜨거운 계절에 燥火탓으로 혹은 秋燥의 시기에 燥

氣가 煉人하여 陰血이 宗筋을 榮養하지 못하여 痿軟之症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情況下에서는 後天적인 水穀精微가 脾氣散精을 거쳐 肺에 上歸하여 肺에 津氣를 채운다 肺는 一身의 氣化를 주관하고 百脈을 朝會하며 津氣를 全身에 輪轉하여 筋骨經脈이 濡養되면 정상적인 運動기능이 유지된다 만약 邪熱이 犯肺하여 혹은 病後에 邪熱이 未清하여 肺金이 邪熱로 熏灼되면 津液이 傷하여 水虧火旺하여 高原津氣에 生火의 근원이 없어져서 筋脈이 濡潤되지 못하므로 手足이 痿弱不用해져서 痿症이 된다

二. 肝腎虧虛

體弱病久하여 陰精氣血이 虧損되거나 혹은 房勞過度 등으로 肝腎을 傷하면 이런 것들이 痿症의 重要원인이 된다 「素問 痿論」에 이르기를 “思想이 無窮하고 所原不得하거나 意淫于外하고 入房太甚하여 宗筋이 弛緩되면 筋痿가 된다 “장경악이 이른바 “敗傷元氣者亦有之”라 함도 이것에 속한다” 肝은 藏血主筋하여 罷極의 근본이 된다 腎은 藏精主骨하여 作強之官이 된다 精血이 充盛하면 근골이 堅強하여 활동이 정상적인데 房勞 久病 등 원인으로 精血이 虧損되면 精虛則不能灌溉, 血虛則不能營養하고 다시 陰虛內熱로 灼液傷津하여 筋骨經脈에 濡養하지 못함으로 본병에 이른다 「景岳全書 雜證 痿證」에 이르되 “痿證之意 ··· 元氣敗傷則精虛不能灌溉 血虛不能營養者亦不少矣”라 하였다

三 脾胃損傷

원래 脾가 약한데 병으로 인해 虛해져서 脾胃의 受納運化기능이 失常하여 氣血生化之源이 부족해진다 脾主四肢肌肉에 대해 「素問 太陰陽明論」에 말하기를 “脾病에 四肢不用함은 무슨 까닭인가?” 기백曰 “四肢는 胃에서 氣를 받는데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脾에 원인이 있어 그런것이다 이제 脾病으로 胃가 行氣津液이 不能해져 四肢에 穀氣가 이르지 못해 氣가 날로 衰해지고 脈道가 不利해져 筋骨肌肉이 생기지 못해 쓰지 못하는 것이다”하였다.

「證治廣補」에는 한걸음 나가서 “氣虛痿는 飢餓勞倦으로 因하여 胃氣가 한번 허해져서 脾氣가 先絶하고 百骸溪谷이 失所養하여 宗筋이 弛緩되고 骨節이 空虛해진다.”

다른 방면으로 肥甘厚味를 過食하고 飲食不節로 損傷脾胃하여 濕熱이 蘊積하기에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이르러 絡脈이 壅滯하고 氣血運行에 영향을 미쳐 점차 痿가 된다

「證因脈治」에는 “脾熱痿軟之因으로 혹 水飲不謹으로 水積熱生하고 혹 膏粱積熱로 濕熱傷脾하여 脾主肌肉이므로 常不仁하고 脾主四肢이므로 常痿軟하다”

「證治江補 痿覽」에 또 이르기를 “濕痰痿는 肥盛之人이 血氣가 不能運動其痰하여 濕痰이 內停하여 經脈에 客하여 腰膝麻痺 脈沈滑數하게 되며 膏粱酒濕때문에 소위 土가 太過하여 사람의 四肢가 不舉하게 한다. 飲食不節이나 過食膏粱厚味 역시 本病의 成因中 하나이다.”

四 濕熱浸淫

濕地에 오래 있거나 涉水淋雨하여 外來之濕邪를 感受하거나 積漸不去하고 郁而生熱 浸淫經絡하여 筋脈이 弛緩하여 못쓰게 되어 痿證이 된다

「素問 生氣通天論」에 이르기를 “濕때문에 首如裹 濕熱不攘하여 大筋이 軟短하고 小筋이 弛長하여 軟短爲拘하여 弛長爲痿한다” 하였다.

「素問 痿論」에 또 이르되 “有漸于濕 以水爲事하여 若有所留하여 居處相濕 肌肉濡漬하여 痺而不仁하고 肉痿가 된 것이다. 종합하건데 때맞춰 濕熱이 더해지고 혹 濕熱이 피부에 中하여 經絡에 전해지고 濕熱傷筋하고 絡道不利하여 本病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설명한 한가지 종류의 痿證에다 바깥 환경과 外邪感受의 관계가 至大하다

五. 瘀血阻絡

産後에 惡露가 未盡하여 流于腰膝하거나 혹 跌仆損傷하여 血液이 瘀阻하여 暢行하지 못하여 四肢에 運養하지 못하므로 痿病이 된다. 「丹溪心法」 「類證治裁」 등에 모두 瘀血이 痿證의 成因중 한가지로 본다.

李用粹의 「證治廣補 痿覽」에는 本病의 분류에 血痿覽이라는 것이 있다.

「醫林改錯」에는 痿癱에 황기오물탕을 쓰라는 말은 氣虛瘀血論治이다 歷代醫家가 말한 한가지 病因의 重視할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건대 本病의 病機에 대한 인식은 적지않은 醫家가 내경과 단계의 說에 기초하였고 火熱爲患에 편중된 바가 많으니 病位가 肺에 있다는 인식이다

「沈氏尊生書 諸痿源流」에 이르기를 “諸痿는 熱이 血脈을 傷한 病이라 대개 火熱之

邪가 血脈을 傷하여 經筋 骨髓 血脈 肌肉 皮生之痿가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病의 근원이 肺를 主로하고 肺燥居上 主氣畏火하고 行治節… …

熱邪來金 肺先受克하여 속으로는 葉焦하고 밖으로는 皮毛를 허약하게 하여 筋脈 骨肉에 붙어 痿躄이 발생한다.” 하였다.

沈氏의 所論은 비록 重点을 突出하였으나 전면적 개괄은 못한 것이다 임상에서 보면 痿證이 熱 虛 痰 瘀에서 연유함이 많아 諸因을 형성하고 病位가 肺 胃 肝 腎 등 장부에 관계가 많다.

「臨證指南醫案 痿 鄧滋九按」에 이르되 무릇 痿證之旨는 肝腎肺胃 四經의 병에 불과하니 대개 肝主筋하고 肝傷則 不爲人用하여 근골拘攣하고 , 腎藏精인데 精血相生 精虛不能灌溉諸未하고 血虛則不能營養筋骨하고 ; 肺主氣인데 위로 清之臟하고 肺虛則高原化絕 火絕則水涸 水涸則不能濡養筋骨하고 ; 陽明은 宗筋之長이므로 陽明虛則 宗筋緩 宗筋緩則不能束筋骨함으로 機關에 영향끼쳐 견지를 못한다하여 病의 機作을 비교적 심층분석하여 여러사람이 수궁하게 한다

마. 診斷과 鑒別診斷

一. 診斷

痿證은 上肢나 下肢, 한쪽 혹 양쪽에 많은데 筋脈弛緩 痿軟無力 運動不利하고 심지어 癱瘓에까지 이르는데 아래에 열거한 임상표현이 진단의 요점이 된다.

- (一) 肢體痿弱無力 甚則不能持物或行走
- (二) 患肢肌肉萎縮 肢體瘦削
- (三) 本病이 溫熱病中에 발생되었으나 혹 열병이나 다른 병의 뒤에 발생되었는가?

이외에 각각 다른 임상표현을 근거로 변별하니 이하 脈 肉 骨 筋 皮의 五痿로 나눈다.

1. 脈痿 - 四肢關節에 나타나는 證을 보면 不能舉動 筋骨緩而不收 足脛軟弱 不能站立差地이다

「素問 痿論」에 이른바 “心主身之血脈 …… 心氣熱 則下脈厥而上 上則下脈虛 虛則上脈痿 樞折掣 脛緩而不任地也”이다.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2 肉痿 - 腰脊에 나타나는 證은 麻痺不仁 四肢不能舉動인데 「素問 痿論」에 이른바 “脾主身之肌肉… 脾氣熱 則胃于而渴 肌肉不仁 發爲肉痿”이다 달리 말한바 “有漸于濕 以水爲事 若有所留, 居處相濕 肌肉濡潰 痺而不仁 發爲肉痿”이다.

3 骨痿 - 腰脊에 나타나는 證이 不能伸舉 下肢痿弱인데 「素問 痿論」에 이른바 “腎主身之骨髓 腎氣熱 則腰脊不舉 骨枯而髓減 發爲骨痿”이다 달리 말하면 “有所遠行勞倦 逢大熱而渴 渴則陽氣內伐 內伐則熱舍于腎 腎者 水臟也 今水不盛火 則骨枯而髓虛 故足不任身 發爲骨痿”이다

4 筋痿 - 筋에 보이는 證에 緩拘攣漸至痿弱不用인데 「素問 痿論」에 이른바 “肝主身之筋脈… 肝氣熱 則胆泄口苦筋膜乾 筋膜乾則筋急而攣 發爲筋痿”이다

5. 皮痿 - 皮毛에 보이는 證에 枯痿或見喘咳氣逆등증인데 「素問 痿論」에 이른바 “肺主身之皮毛 … 故肺熱葉焦 則皮毛虛弱急薄 著則生痿躄也”이다

二 鑒別診斷

痿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病證鑒別한다

(一) 痺證

痺證에도 肌肉萎縮과 關節활동장애가 있다 다만 痺證에는 正氣不足으로 연유하는 것이 많고 感受風寒濕邪하여 經絡關節사이를 痺阻하여 骨節重着 麻木 疼痛에 이른다 일부 환자는 痺證日久한데 瘀痰互結하여 關節기형 腫大 活動장애 등에 이르기도 하고 심한 것은 肌肉萎縮에 이른다. 다만 痺證은 확실한 동통증상이 있고 痿證은 肢體軟弱無力 活動障礙가 있거나 심하면 肌肉萎縮 萎廢不用에 이른다 「儒問事親」에 이르되 “不仁或痛者 爲痺, 弱而不用者爲痿 痺者 必風濕寒相合, 痿者 必火乘金, …… 痿之爲狀 兩足痿弱不能引用” .

「證治百問 卷四 痿」에 달리 이르되 “痿與痺二症天淵不同 痿本虛證 惟有軟弱無力 起居日廢 行步困難 並未痛楚者也 若痺症爲不足中之有余 . . . 必爲麻木疼痛 行動困難者也 故痺病在表 本風寒濕地外感 痿證在里 屬精神氣血不足… .”이라 하여 古代醫家들이 이를 상세히 변별한 것이 보인다

(二) 痲證

「靈樞 熱病」에 “痲之爲病也, 身無痛者 四肢不收 智亂不甚 其言微之 可治, 甚則不

能言 不可治也” 「醫學綱目 總論」에 “痺病有言變志亂之症 痿病則無之也 痺病又名風痺 而內傷外感兼備 痿病 獨得于內傷也 痺病廢于岳仆之暴 痿病發于怠惰之漸也 凡此皆明痺與痿 明是兩疾也” 라하여 이같은 연유로 보건되痿와痺證의 중요 감별점은 痺에는 神志병변이 있고 들연히 생기는데痿證은 神志증상이 없고 완만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三) 偏枯

달리 칭하자면 반신불수인데 營衛俱虛에서 유래하는 것이 많고 眞氣가 全身을 채우지 못하거나 혹 邪기가 침습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증을 보면 한쪽 上下肢가 偏廢不用하고 혹 동통을 겸한다. 오래되면 환자의 肌肉이 枯瘦하는데 神志에는 이상변화가 없다 「靈樞 熱病」에 備枯 身備不用不痛 言不變 志不亂 病在 分腠之間…… 이라고 하였으니痿證과 다르다

(四) 骨懸

骨懸 즉 骨搖, 바로서지 못하는 것이니 「靈樞 根結」에 이르되 “少陽爲樞 樞折卽骨懸而不安于地 … 骨懸者節緩而不收也 所謂骨懸者搖故也” 라 하였으니 본증은 似痿非痿이니 내경에는 별도로 病名을 세웠다

三. 辨證論治

肺熱熏灼으로 생긴痿證은 溫熱病中에 많이 생기나, 혹 병후에 들연히 肢體가 痿弱不用하기도 한다 肝腎陰虛에서 오는 것은 起病이 완만하고 차츰 下肢痿弱不用이 나타나고 脾胃氣虛에서 오는 것은 四肢困倦 痿弱無力이 많이 보이고 濕熱浸淫으로 오는 것은 兩足痿軟 혹 微腫이 많이 보이고 絡脈瘀阻에서 오는 것은 手足麻木不仁이 많이 보이고 혹痿廢不用도 있다 임상에서 응당 求病因 審證型 辨虛實하여 施治를 分別進行해야 한다

바. 辨證

一. 要點

1 病因은 물어볼 때 病史의 특징에 주의하고, 임상소견에서 여러형의痿證과 그 成因 關係를 密切하게 審證求因하는데, 변증에 참고할 점과 역대의 관련논술을 아래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에 分述하니 참고하라.

① 有五臟受熱史

「張氏醫通 痿痺門」에 “痿證의 장부病因이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대부분이 陽明濕熱에서 일어나 內蘊不清하여 肺受熱乘하여 날로 쌓이고 脾受濕淫이 날로 넘쳐서 드디어 上枯下濕之候를 이룬다 하였다.

「儒門事親 卷一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二」에 이르되 “總因 肺受火熱葉焦之故 相傳于四臟 痿病成也”라 하였다

② 有房勞不節傷腎史

「素問 痿論」에 이르되 “思想無窮 所願不得 意淫于外 入房太甚 宗筋弛緩 發爲筋痿라 하였고 「儒門事親」에 이르기를 “大抵 痿之爲病 皆田客熱而成 好以貪色 強力過及 漸成痿疾”이라 하였다

③ 有居處濕地史

「素問 痿論」에 “有漸于濕 以水爲事 若有所留 居處相濕 肌肉濡漬 痺而不仁 發爲肉痿 故下經曰：肉痿者 得之濕地也”라 하였다.

④ 有情志失調史

「素問 痿論」에 悲哀太甚則胞絡經 胞絡經則陽氣內動 故本病曰：大經空虛 發爲肌痺 傳爲脈痿”라 하고

⑤ 與氣候變化有關

「素問 氣交變大論」에는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腹痛 …… 足痿不收 行善瘦 脚下痛이라 하고 「素問 五常正大論」에 陽明司天 筋痿不能立久라 하여 여러가지 痿證의 成因을 了解하고 變證분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審察虛實 - 所關 臟腑를 분명히 가려서 만약 起病이 急驟하고 病情發展이 較快하고 처음에 發熱 등 外感 證상이 있으면 대개 實證이고 만약 起病이 완만하고 오래 안 나오면 대개 虛證이다. 實證中에 처음 發熱이 보이거나 抵熱未退하거나 口紅乾脈 細數하면 대개 肺熱傷津에 속한다

下肢에 痿가 보이면 受濕 등의 病史가 있거나 舌苔가 黃膩하거나 脈滑數하면 대개 濕熱浸淫에 속한다. 虛證中에 納少便溏하거나 肌肉萎縮이 主證이면 대개 脾胃虛弱에 속한다. 腰脊酸軟하고 頭眩遺精이 주증이면 대개 肝腎虧虛에 속한다.

二 證候

임상응용에 편리하게 하려고 본편에 痿證을 그 成因을 임상특징과 결합하여 肺熱傷津 肝腎虧虛 脾胃氣虛 濕熱浸淫 瘀血阻絡으로 나눈다.

(一) 肺熱傷津

① 症狀 · 兩足이 痿軟不用하고 점차 肌肉淸瘦에 이르고 皮膚枯燥 心煩口渴 喘咳無痰 咽喉不利 小便短赤熱痛 舌苔紅黃 脈細數하다.

② 病機分析 : 「素問 經脈別論」에 “脈氣流經 經氣歸于肺 肺朝百脈 輪精于皮毛…” 하여 전신의 혈액(包括津液)이 肺臟으로 모두 流經하고 다시 전신 皮毛까지 營養한다. 溫熱犯肺로 말미암아 肺熱傷津 水源告竭하여 津液이 전신에 퍼지지 못하여 筋脈失養하여 이로써 痿弱不用하게 된다. 心煩口渴도 역시 熱盛傷津之征이라 폐를 熱灼하여 燥盛해지고 淸肅失司하여 이로써 喘咳無痰하고 咽喉不利한다 小便短赤熱爲하고 舌紅苔黃 脈細而數함은 陰傷津涸 虛熱內積의 표현이다.

(二) 肝腎虧虛

① 症狀 · 腿脛의 大肉이 漸脫하여 膝脛이 痿弱해져서 不能久立하고 步行이 불가능하게 되며 겸하여 遺精 早泄 遺尿 腰脊酸軟咽乾 頭目眩暈 脈細數 舌紅絳하게 된다

② 病機分析 : 肝主筋 腎主骨이니 久病으로 體虛腎元不足하거나 혹 房事不節로 肝腎虧虛해져 精血이 濡養筋骨經筋하지 못하는 고로 점차 痿가 된다.

腎主藏精 腎虛不藏하는 고로 遺精早泄하고 腎과 膀胱은 서로 表裏이니 腎虛則膀胱下約하여 遺尿하고, 腰는 腎之府이니 精虛髓空하여 腰脊을 失養하는고로 痿軟이 나타난다 頭昏目眩하면 肝腎陰虛에 속하니 水虧木旺하는 연고이다.

舌紅絳 脈細數는 모두 陰虛內熱之征이다

(三) 脾胃虛弱

① 症狀 : 평소애 納小便唐하거나 久病으로 脾胃가 허약해져서, 食少, 腹脹 氣短 面浮色不華하고 점차 下肢痿軟無力이 나타나고 심하면 肌肉이 위축하고 舌苔薄白 脈細하다

② 病機分析 · 脾虛氣弱하여 소화가 안되고 食少便唐하거나 脾主四肢인데 失養健運하면 氣血生化之源이 부족해서 四肢에 水穀의 精氣가 도달하지 못하니 筋脈이 失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榮하고 骨節이 空虛해진다 面色이 無華하고 氣短 肢體痿軟 苔白 脈細함은 모두 脾胃氣虛之征이다

(四) 濕熱浸淫

① 症狀 · 肢體가 점점 痿軟無力해지고 下肢에 늘상 혹은 가끔 微腫이 생기고 手足麻木 頑痒하고 어루만지면 미열있고 喜涼惡熱 身重面黃 胸脘痞悶하고 소변 赤澁熱病하고 舌苔黃膩 脈濡數하다

② 病機分析 : 久臥濕地 涉水淋雨 濕熱不去하여 濕熱이 脾에 郁蒸하거나 流于四肢하여 浸淫筋脈하고 氣血阻滯하는 고로 兩足이 痿軟하고 喜涼惡熱한다. 濕性濡滯하는고로 身重하고 濕熱熏蒸하는고로 面黃한다 胸脘痞悶은 濕熱이 胸격에 滯塞함이고 濕熱下注하면 소변이 赤澁熱痛한다 苔黃은 熱이고 膩은 濕이다 脈濡는 濕象이고 數는 熱之征이다

(五) 瘀阻脈絡

① 症狀 四肢痿軟 手足麻木不仁 唇紫舌青 四肢青筋現露 經絡間抽掣作痛하고 혹痛點이 있고 脈澁不利한다

② 病機分析 : 産後惡露가 腰膀에 客하여 혹은 跌仆損傷하여 積血不消하여 血液순행을 阻礙하여, 경맥痰滯에 이르러서 四肢痿軟 手足麻木不仁하게 되고 不通則痛이니 掣痛 壓痛하고 舌青 脈澁 등은 모두 어혈이 經絡을 阻한 征이다 더욱이 中풍 이후 經絡에 혈액이 凝聚하여 不行하면 늘상 수족이 麻木不仁하게 되어 痿廢不用하게 되고 오래도록 낫지 않는다

三 治療

(一) 치료 原則

痿證 치료원칙은 肺熱傷津에서 오는 것은 마땅히 清熱潤燥하는 것이다 肝腎虧虛는 滋養肝腎, 脾胃虛弱은 益氣健脾, 虛實이 겸하면 허실 겸치 한다

「素問 痿論」에 말한바 「治痿獨取陽明」하라는 治則은 일찍부터 역대 의가들이 소중히 하던 바라 소위 獨取陽明이라 함은 일반이 가리키는 補益後天 혹은 清化陽明濕熱이라는 말이다. 「醫宗必讀, 痿」에 이르되 「足陽明은 胃이다 주로 納水穀化精微하고 表里를 資함으로써 五臟六腑之海와 宗筋을 下潤한다 宗筋은 前陰所聚之筋을 말

하고 諸筋之會이다 무릇 腰脊溪谷之筋이 모두 이에 속하는고로 主束骨하고 利機關한다” 하였다 따라서 健脾益氣 益胃養陰은 본병 치료의 요점이다

痿證日久하면 氣血不行에 이르러 이로인하여 痿證을 치료할 때 通經清瘀活血之品을 적절히 배합하라. 만약 元氣虧損하면 氣虛血滯하여 成痿 하니 補氣化瘀가 마땅하며 方은 王清任의 보양환오탕이다 본병에 風藥表藥은 慎用하라 「丹溪心法」의 말한 바처럼 痿證斷不可作風治而用風藥하라. 「景岳全書 雜證漢」에 이른 痿證最忌發表亦恐傷陰은 이 논점에 相符한 것이다

1 肺熱傷津

① 治法 甘寒으로 清上하고 清熱潤燥하라

② 方藥 . 清燥湯을 常用한다 본방에는 清金潤燥之品이 重在하니 맥문동 오미자로 保肺生津하고 당귀 생지로 滋陰養血하고 황백 황련으로 燥濕清熱하고 황기 二朮 蔘 甘 橘 神曲 등으로 健脾燥濕 理氣化滯하고 升 柴로 升清하고 苓 澤으로 降濁하면 濕熱이 소변따라 나가게 되어서 燥金清肅해진다 아울러 사삼 옥죽 등 甘潤生津之品을 더 넣어 肺金을 清潤케 하여 水津이 自能散布하게 되어 枯痿한 筋骨이 다시 濡養을 얻어 스스로 조금씩 회복하게 된다. 疫毒이 傷肺하여 痿가 된것은 서각 길경탕을 쓸 수 있다.

오래되어 面白少華 呼吸短氣하면 津傷하고 氣血까지 허함이니 맥문동청폐음이 쓸 만하다 方中の 맥문동 인삼 등외에 황기 당귀 등의 生津液補氣血하는 것도 있다 만약 식욕감퇴가 있거나 口燥咽乾이 비교적 현저하면 이는 肝胃陰傷에 속하니 益胃湯에 의이인 산약 지류를 加하여 養胃生津하여 陽明論治를 따르라

2 肝腎虧虛

① 治法 · 滋陰清熱 補益肝腎하라

② 方藥 · 호잠환 위주인데 方中の 황백, 지모 숙지 귀판교 등은 모두 滋陰清熱之品이니 重用하라.

호골은 强壯筋骨하고 쇠양은 能補腎陽하나 다만 性溫하니 많이 쓰지 말라 건강은 辛溫하니 溫通行氣를 取하고 熱盛함은 去해야하니 다시 인삼 현삼 산약 등 養陰清熱之品을 더한다. 足熱枯痿에는 填精益髓가 마땅하니 육미환加 牛骨髓 猪脊髓 鹿筋膠 羊肉膠 귀판 구기자 등을 가한다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만약 久病으로 陰損하고 陽까지 미치면 陰陽俱虛이니 神倦 怯寒 舌質紅 脈沈細無力하는데는 선령비 파고지 파극肉 녹각 녹각교환을 配用하라 方中の 녹각 토사자는 溫腎하고 숙지 귀판은 滋陰하는데 황기 육계를 參작하여 加하여 溫養陽氣하라.

3 脾胃虛弱

① 治法 健脾益氣 或 濡養胃陰하라.

② 方藥 : 보중익기탕 或 경옥고를 쓴다 臟腑肢體는 모두 脾胃로부터 稟氣하는데 脾胃皆虛하면 肢體가 稟氣하지 못하여 痿하게 된다 본방은 蓼芩朮草로 補肺脾之氣하고 升紫로 升清以降湯하고 다시 진피로 理氣 당귀로 和血 羌活로 調和營衛하여 脾胃를 健하게 하면 肢體는 得稟하여 痿弱이 自察한다

만약 病久體虛 氣血兩虛하고 面白少華가 伴見하고 必悸氣短하면 蓼芩을 重用하고 다시 구기 용안육을 加한다. 만약 氣陰兩虛를 檢하면서 少氣懶言이 伴見되고 動則氣喘하면 蓼芩을 重用하고 오미자 맥운동을 加하여 補益氣陰하라.

만약 熱傷胃陰이면 경옥고가 마땅한데 옥죽 석고 석곡 화분 등을 加하여 치료하라 或 옥녀전加서각도 좋다. 만약 飲食太過로 脾胃가 受困하여 升降失積에 이르러서 轉運失常하여 手足軟弱에 이른것은 그중에 반드시 腹膨脹痛이 나타나고 惡心噯氣한다 그 치법은 먼저 消食導滯함이 마땅하고 食滯가 去한뒤에 理脾한다.

4 濕熱浸淫

① 治法 . 清熱化濕

② 方藥 · 加味二妙散이 主方

方中에 황백으로 清熱 蒼朮로 燥濕 진교 천우슬 비해 방기로 導濕熱下行하고 심하면 황금 복령 택사를 加한다. 濕證既除후에는 마땅히 清熱滋陰하는데 痿證이 원래 宗筋實養所致로 인한 것이면서 濕證이 아닌 것이 확실하면 辛燥之藥은 慎用하라.

形肉消瘦하고 兩足奇熱 心煩 舌渥尖紅하고 或 中剝無苔 脈細數하면 이는 濕熱傷陰이니 上方에 의의 산약 사삼 화분 맥문동을 加해 清熱生津하고 或 神繩滋陰丸을 쓴다. 陰虛濕熱이 成痿하여 兩足이 奇熱하여 건디기 어려우면 호잠환을 加하여 쓴다

5. 瘀阻脈絡

① 治法 益氣養血 活血行瘀

② 方藥 · 聖愈湯加味 方中の 四物은 調肝養血하고 人參 황기로 益氣하고 道인 홍화 우슬을 加해 活血行瘀하고 氣血健旺하게 하고 瘀去新生筋骨得養하면 痿弱이 점점 낮는다. 手足이 麻木하면서 舌痿不能伸緩하면 上方에 去 백작 加 적작 천산갑 삼칠 굴락 목통으로 通絡行瘀한다 肌膚甲錯形體消瘦 手足痿弱하고 瘀血이 久留하면 大황서충환으로 緩中補虛한다.

四. 其他治法

(一) 單方

① 석곡 회우슬 상백피 각30g 감초 6g 水煎 日二回 服 治肺熱傷津痿證

② 大麥米去皮 60g 의이인 60g 토복령 90g 爲粥 煮熟 去토복령 常服 - 治濕熱浸淫痿證

③ 녹각片 300g 酒浸一宿 숙지 120g 附片 45g 大麥朮和蒸熟 焙乾爲末 大麥粥和丸 日3回 7g씩 米飯送服 - 治肝腎不足痿證

④ 燻乾牛骨髓粉 300g 黑芝麻 300g 略炒香 研末 설탕 섞어 9g 日二服

⑤ 紫河車粉 日二回 3g 服 上方을 隨證選用할 수 있다.

(二) 成藥

① 호삼환 日2회 6g씩 淡鹽湯途下 - 肝腎不足痿證에

② 二妙丸혹 四妙丸 日2회

(三) 肢體痿癱方

① 張錫結「哀中參西錄」振頹湯 - 治痿癱 . 生황기 지모 野台參 乾朮 당귀 生明유향 生明물약 위령선 건강 우슬, 加減法, 熱加생석고, 寒加烏附子 去지모, 筋骨受風 加 明천마, 脈強硬而大 加 용골 모려 或 加 산수육, 骨痿癱加 녹각교 호골교, 手足痿 加계지尖

② 振頹丸 亦證之劇者에 이환약 覓복可 혹 單服此丸可 - 治痛枯痺木諸證

인삼 60g 炒乾朮 60g 당귀 30g 마전자주제 30g 유향 30g 물약 30g 쏘오공(大) 5條(不用灸) 천산갑(합분초) 30g

研細過篩 煉蜜爲丸 梧子大 無灰溫酒로 日 二服 6g씩

③ 가미金剛丸「월석무 의료경험」 비해 30g 두충 30g 육종용 30g 토사자 15g 파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극 30g 천마 30g 강잠 30g 오공 50條 전갈 30g 모과 30g 우슬 30g 오적골 30g 정제마전자 60g (解毒必) 밀환 3g 重日 1~2회 1~2粉服 혹 單用혹湯合用 白井水化服 만약 마전자 중독증상(如牙關緊閉)에는 즉시 停藥하고 涼水를 많이 먹인다

(四) 益髓湯

생황기 숙지 계혈등 각15g 당삼 백출 당귀 백작 녹각교 파고지 천속단 천우슬 각 9g 귀판 구기 토사자 각12g 지모 황백 각6g 감초 3g, 식욕부진 加 진피 지각 炒맥아 六神곡 각9g 去숙지 파고지, 腰背酸脹加 두충 9g, 心慌 加 복신 백자인 산조인 각 9g, 대변 乾加 육종용 12g

(五) 추나 요법

① 上肢 拿견정筋, 揉捏 비노, 수삼리 합곡 部肌筋, 点견우 곡지, 搓揉臂筋, 여러차례

② 下肢 拿음림 승산 곤륜筋, 揉捏 복토 승부 은문 部肌筋, 点腰陽關 환조 족삼리 위중 독비 해계 내정등穴, 搓揉 服肌 여러차례 手勁剛柔并濟하는데 深透위주로 하라

(六) 침구료법

양명경혈 위주로 침구하라(上肢 取수양명대장경 腧穴위주, 下肢痿 取족양명위경 腧穴위주) 근거가 되는 病因과 所犯장부가 다르면 상응하는 경맥의 穴位를 配用하고 不同手法을 쓴다 補氣榮而通其俞 調其虛實 和其順逆하면 痿邪가 제거되고 筋骨이 濡養된다

主穴 上肢 견우 곡지 합곡 양계, 下肢 髀關 양구 족삼리 해계

配穴 肺熱加 적택 폐유, 濕熱加 음능천 비유, 肝腎陰虧加 간유 현종 양등천, 肺熱혹濕熱明見은 單針不灸 用瀉法, 肝腎陰虛氣血不足加 針灸同施 用補法

사. 轉歸及預後

각종 痿證之間에 상호관련이 있고 溫熱이나 濕熱을 感受하여서 痿가 되는데 다만 오래되면 肝腎虧損에 이르고 (肝腎虧損은 또 陽損 陰損이 있고) 陽虛證候가 나타난다 다시 경락은 氣血이 흐르는 길인데 痿證日久하면 기혈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끼쳐 경락이 瘀滯하여 筋骨失濡養 關節不利 肌肉萎縮에 이르는 원인도 된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動態變化에 주의를 기울이고 固守不變은 不可하다

痿證의 預後는 病程의 長短虛實과 관계 있다. 實證은 早期急性病例에 많이 보이며 病情이 비교적 輕淺하고 효과도 비교적 좋고 기능도 쉽게 회복된다

虛證은 만성병에 病勢가 纏綿하고 빠른 효과를 못보고 기능회복도 비교적 곤란하다. 연로하고 體衰한 병자는 예후에 차이가 있다

자. 預防과 調理

평시에 체질단련과 情志조절에 주의하고 濕邪侵襲과 房事過度 등을 삼가한다 脾胃虧虛하면 음식 調養에 주의하고, 다만 濕痰 濕熱로 成痿하면 膏粱厚味 辛辣之品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적절한 기능 단련을 배합하는 것도 忽視하지 말라.

차. 現代研究

해방후 각지에서 中醫치료의 痿證에 대한 理法方藥의 운용과 현대의학적 진단으로 다발성 신경염, 진행성肌위축, 重症肌無力 등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가 함께 이뤄져 약간의 經驗이 쌓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痿證의 證治에 적지않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고 있다

一. 急性多發性神經炎

다발성 신경염은 起病急驟하고, 환자에게서 발열 등 증상을 제외하고는 이완성 혹은 대칭성 癱瘓을 많이 나타내며, 엄중한 것은 20시간 內 사망하기도 하며, 여름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해에 유행한다 그러므로 변증해보면 暑熱傷氣에 속하는 것이 많고, 濕熱之邪가 筋脈肌肉을 浸淫하여 弛緩不用하게 되는 것이 많다

소위 濕熱不攘 大筋軟短 小筋弛緩長 軟短爲拘 弛長爲痿이다 본병의 급성기에는 위장과 肺部증상이 많고 實證爲主이나 회복기의 증상은 虛證爲主이다 우리는 중의 위주에 중서의 결합치료도 효과가 확실히 좋아짐을 확인하고 사망을 역시 내려감을 확인하였다 그 방법은 이렇다.

× 四妙丸가미 . 창출 황백 비해 생의이인 우슬 잠사(包煎) 한방기 각9g 絲瓜絡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6g) 無熱象에 可去 황백 한다. 강소성 사람을 四妙丸加味로 濕熱留滯 經絡受阻 肢體軟弱無力증을 치료했는데 본방의 去濕효과가 좋았고 사용후 膩苔가 易化하였으나 탄탄의 회복은 비교적 완만하였다.

複方馬錢子制와 西藥 배합치료 - 강소의원에서 1975년이래 본범위주 치료로 한 264례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

(一) 급성進展期

① 病機는 濕熱留着 經絡受阻

② 治法은 清利濕熱 通經活絡

③ 方用 複方마전자탕 I 호 국은화 판남근 대청엽 각30~60g 황금 선령비 상기생 각9~15g 마전자 0 9~9g 감초 9~30g)

본방을 일반적으로 3~5제 쓰고 病情停止와 進展을 살핀후 곧 複方 마전자탕 II 호를 다시 썼다

④ 加減 痰多加 죽력 30~60g 肢體동통加 현호 유향 몰약 각9~15g 호흡이나 심혈관기능 不全加 홍삼 백지각 9g 사향 0 09g 痰稠厚 加 全瓜蒌 나복자 각 15~30g 延髓 痲痺 加사삼 우방자 王蝴蝶 각9~15g

(二) 회복기

① 病機는 脾腎兩虛 肢痿減少

② 治法은 補脾益腎 益氣壯骨

③ 方用 복방마전자탕 II 호 : 황기 황정 구기자 각15~60g 선령비 상기생 각근 각9~30g 마전자 0 9~9g 감초 9~30g

임상실천 중 發現 - 급성기에 직접 II호방 쓴 것과 비교하니 I호방의 효과가 더 좋았다 치료효과 痊愈 및 其本痊愈 149례 (56.4%) 好轉 98례(37.2%) 무효(均死亡) 17례(6.4%)

평균 입원일 25일 좌우 최장 140일 최단 3일 - 대부분의 환자가 복약 24~48 시간에 病情이 停止發展하고 소수의 환자가 복약후 數시간에 病情이 즉시 안정되어 능히 독립 行走하는데 일반병인은 복약후 3~5일에야 회복기에 진입하였다.

④ 변씨가 보고한 급성감염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 91례 西藥만 쓴 레 23례 중서의 치료 결합組 68례는 除西藥치료외 加 中藥치료를 함

a. 急性期방제 . 금은화 판남근 각30~60g 황금 15~30g 선령비 상기생 각 8~15g 대청엽 30~60g 마전자 0 3~9g 감초 9~30g

b 회복기 방제 : 황정 30~60g 황기 15~30g 구기자 15~60g 상기생 선령비 회우슬 각9~15g 마전자 0 3~9g 감초 9~30g

늘상있는 3례의 위중한 경우 加 홍삼 9g 사향 0 03g 단순西藥組 사망율 47.8% 중서의 결합組 사망율 7 3% 역시 마전자의 본병치료효과가 좋음이 인정된다

⑤ 中藥配合穴位주사치료 · 20일을 一療程으로 함

a 치료방법

- 抗감염 : 판남근 어성초 금은화 각30g 煎服 7일
 - 穴位주사 B₁ B₂ 選穴 : 외관 곡지 족삼리 환조 삼음교
 - 內服中藥 黃기 우슬 두충 토사자 모과 백출 숙지 복령 日服一劑
- 치료례 30례중 2~4個療程 치유 27례 頭效 2례

二 截癱

孫氏治療截癱(脊髓蛛網膜炎)

辨證은 肝腎虧素한데 濕邪蘊于經絡 郁久化熱 流于筋骨하여 생긴 骨痠筋痠 以清熱化濕 通利二便 佐以培補 肝腎

處方(비해 靑麟丸(包煎) · 瓜仁 지모 동규자 차전자 담종용 당질려 숙지 각9g 왕 불류행 12g 一見喜 15g 목통 3g 사용중 稍事加減)

일반적으로 30劑로 其本痊愈. 북경 모의원에서 外傷性截癱을 치료, 主治 이완성 截癱이 비교적 重한 경우 57례중 55례 能遂步行走 혹 扶杖行走

方藥조성(外傷性截癱丸) · 숙지 음양곽 토사자 마전자 황기 각120g 백개자 해마 천비해 焦三仙 독활 육계 귀판 당귀 各60g 생마황 백작 各45g 녹각교 炮姜 호골 토 별충 전갈 各30g 노봉방 적당량 每丸 6g 침치치료 配合 매회 1~2丸 半丸에서 시작 하여 漸增 매일 2次

三. 進行性肌영양불량

진행성肌영양불량症은 유전 素因으로 생기는 병이다 肢體近端肌에서 시작하여 양측에 대칭적으로 진행되는 消瘦無力해지는 肌肉疾病이다.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近年에 먼저 보양환오탕을 먼저 써서 益氣活血化痰하고 이어서 보중익기탕으로 補氣健脾하여 本病假性肥大型을 치료한 경험을 소개한다. 또 침刺치료도 진행성 肌 위축側索硬化症에 일정효과를 본예도 있다

取穴은 대추 곡지 수족삼리 등에 10日을 一療程으로 共히 四個療程으로 하였다
보조치료는 비타민 B₁ 筋草酸에 강력한 기능단련 정신조절로 病人의 主觀能動性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었다

四 重症肌無力

중증肌무력은 신경계통질환중 흔히 보이는 질병인데 본병을 근거로 眼瞼下垂 咀嚼과 呑咽곤란 四肢肌肉無力 등 주요임상표현을 痿證범주로 볼 수 있다

중의중약으로 본병치료하는 것은 健脾益氣 神腎壯陽 혹 脾腎兩活 위주로 하는데 方藥에 마전자 制劑를 加하여 起痿振頹 開通經絡 透達關節한다.

(一) 補益脾氣

급성 起病者에게 대개 脾虛濕熱爲主로 治以清熱 化濕 益氣健脾하는데 인진 30g 복령 산치 당삼 백출 창출 각10g 황백 곽향 6g을 골라쓴다

病程이 慢性이면 대개 久病으로 脾氣下陷 少氣懶言 舌胖苔白 脈浮數細 등증에 보중익기탕 위주방으로 치료하였는데 眼肌型에 효과가 좋았다 어떤 사람을 중의 변증 하니 기혈부족 비슷하고 특별히 陽氣不足과 비슷한데 별도로 唇舌 四肢 肌肉이 모두 脾胃 二經위주였다 이로 인하여 치료상 調補脾胃 補陽益氣가 着重하였다. 보중익기탕 爲主로 選方하고 황기를 重用하여 益氣하고 부자 파극 등으로 壯命門火하고 脾胃 生化之源을 도우며 사이사이 인삼양영탕에 아교 옥죽 맥문동을 加하여 調補陰陽하고 동시에 灸治法으로 强壯體力하고 機體기능을 조정하여서 치유목적에 도달하였다

(二) 固益腎氣

重症肌無力證을 치료한 보고례도 金鎖固定丸을 日3회 12g씩 써서 해로운 효과가 있었다 2주후에 현저한 효과가 있었고 4개월에 停藥하고 6년간 확인하였으나 재발하지 않았다

(三) 脾腎兩治

張氏가 보고한 重症肌無力에 대한 中藥치료 100례 그중 眼肌型이 70%를 占하고 全身型이 약 10% 球型 약 20% 培補脾腎을 일반 治療로 하고 다시 隨症加減한다 임상상 보이는 증을 세가지로 나누면

제1형 脾腎虛위주로 (또 脾虛氣弱 脾腎氣陰陽虛 脾腎陽虛로 나눈다)

제2형 脾腎虛겸 臟器虛證(엄중한 호흡무력 痰涎粘滯或呼吸衰竭)

제3형 兼기타 전염병 (급성전염병 갑상선 腫大 당뇨병 고혈압) 治療효과 통계 眼肌型 57례 임상 痊愈 1례 顯效 4례 유효 6례 무효 2례 전신형 30례中 임상치유 6례 顯效 7례 유효 14례 무효 3례 100례중 임상적痊愈 26례顯效 15례 유효 45례 總 유효율 66% 무효 14례 (內 1례 延髓麻痺死亡)

作者는 補益脾腎이 본병치유에 적절한 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 調補脾腎이 機體에 內在하는 素因을 調動함이 내분비 계통평형과 면역 機制증강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황기 당삼 녹각교 숙지 구기자 같은 補脾腎하는 약물이 일정한 면역작용이 있다

山東에서 보고된 中藥治療重症肌無力증 41례중 內眼肌型 22례 眼肌加肢體형 4례 延髓加肢體型 1례 전신형 14례 中藥療程 최단 1달 最長3年 平均 3~4月

• 重要 治則 · 健脾益氣 補腎壯陽

• 사용 方劑 補子이중탕 보중익기탕습갈근탕가감

• 藥物組成 台參 15~30g 백출 12~18g 생황기 24~60g 승마 12~16g 시호 9~18g 숙부자 15~150g 갈근 12~30g 당귀 12~24g 진피 9g 마황 6~15g 구감호 6g 水煎兩分 約 250ml를 2回服

• 治療결과 41례중 임상치유 12례 호전 17례 진보 9례 무효 3례 總유효율 92.7%

이외에 당삼 황기 금앵자 육계 쇄양을 주약으로 하는 補益脾腎으로 重症肌無力眼肌型을 治療하여 효과를 본 例 調補脾腎의 전제下에 西醫와 結合하여 重症肌無力的 診斷分型하여 立方하고 遺藥한바를 上海에서 보고함.

① 脾虛氣弱 眼肌型에 많이 보이는바 食욕부진 大便樣軟不實 舌胖苔薄 脈細等 脾虛氣弱症에 보중익기탕으로 升擧法을 주로하고 기본방에 加 黃芩 산약 백편두 태반편등

② 脾腎氣陰兩虛 全身型이 많다 球型 眼肌型은 複視를 동반한다 脾虛證이니 舌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尖紅 舌苔剝乾糙 脈細數 등 傷陰之候에 左歸丸合益氣陽明法을 주로하고

다 脾胃陽虛 더러 全身型 球型이다. 현저한 憎寒怕冷 腰痠舌淡 舌邊有齒痕 苔薄白 脈細軟 등 陽虛證 左歸丸合益氣 溫陽法으로 主之

(三) 其他分型論治

三種類型으로 나누면

① 邪熱灼肺型

熱邪灼肺傷津하여 津液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여 筋脈失養에 이른다. 氣陰兩傷은 益氣養陰이 마땅하니 活血通脈之劑를 쓴다. 처방은 황기 당삼 옥죽 단삼 등

② 肝腎虧虛型

肝腎兩虧則精不足이니 筋骨肌肉이 失于濡養한 것이다. 처방은 養血滋陰하고 補益 肝腎之劑를 쓴다 처방은 녹각교 숙지황 귀판 토사자 등

③ 濕熱浸淫型

濕熱이 筋脈을 浸淫하여 氣血이 阻滯한 것이다. 清熱滲濕之劑로 치료하고 처방은 창출 황백 방기 복령 귀판 등이다

(四) 마전자 制劑 治療에 대한 陳氏보고

制마전자로 中증肌無力을 치료한 3례(內 2례 유효 1례 發生危象無效) 制마전자는 肌力적작용을 증가한다는 보고 그 增長과 持久性에 藥量과 時間에 관계있다 開始時 하루량 0.47g도 肌力이 증가하여 用量漸增量은 하루 1.00g 후 최고 1.25g까지 하여 肌力의 增進이 正常에 접근하며 장기복용으로 肌力의 強度가 保持된다 制마전자와 新斯的明의 효과를 비교하니 후자의 효과발휘가 비교적 빠르고 계속차도가 있다 전자의 치료효과는 비교적 완만하나 지구성이 있었다 일본의사(1968年)가 보고한 갈근탕으로 中증肌無力 치료례 2례 · 滋腎明目湯合 갈근탕 치료 2례 소청롱탕 치료 1례 모두 5례가 유효하다는 보고도 있다

五. 周期性麻痺

주기성 마비는 갑상선대사장애와 관련있는 주기성 발작적 弛緩性癱瘓의 일종이다 孫氏의 보고는 사군자탕가미방으로 주기성 마비를 치료한다 작자는 「素問 太陰陽明論」을 근거로 이제 脾病이면 津液을 行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따라 治脾로 손쓰

는데 사군자탕가미방을 골라써서 益氣健脾하였다. 또 현대 약리연구를 근거로 (백지방풍 두가지 약이 모두 혈관수축중추와 척수의 작용을 흥분시키는 효능이 있음) 前方에 이 두가지를 加하여 주기성마비환자를 치료한 1례이다 침구치료는 발작시 대추 견정 견유 곡지 합곡 환조 족삼리 태충 복토 등 穴位를 頻率 100~200차 1分 1.5밀리암페아 강도의 電針으로 15분 通電하여 강자극을 주었다.

六. 癔病性癱瘓

역병성탄탄은 單癱 혹은 截癱이 많다 늘상 돌연히 발생하는데 감맥대조탕을 쓸 수 있다 회소맥 60g 감초 6g 대추 7매 煎服 매일 1제 침구치료는 환측 上肢에서 합곡 후계 곡지 견우를 취혈하고 下肢에서 용천 태충 양릉천 환조를 취혈하여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七. 小兒麻痺症

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은 일종의 특수한 신경병독으로 생기는 급성전염병이다. 주요 손상은 중추신경계통의 운동신경原이다

근년 각지에서 중의중약으로 본병을 치료한 실적이 많아져 일정한 경험이 되었다

(一) 中醫中藥方面

소씨는 古人이 痿에 대해 말한 것을 근거로 문헌보고와 임상체험을 결합하여 본병을 濕溫痿痺로 명명함

病機는 濕熱灼肺로 全燥水虧하여 筋骨精髓가 손상되어 筋脈이 失養하여 이완不收하는 것이고 肺胃肝腎 四經에 연결된다 제출된 조기진단에 따라 分期치료를 진행하였다

① 初熱期 - 제1차 발열단계를 지칭함 치법은 解表滲濕 苦寒泄熱 芳香化湯, 처방은 감로소독단「溫熱經疏」方, 조성은 연교 박하 활석 목통 인진 황금 곽향 창포 백두구 사간 천패모이다

② 痿痺期 - 제2차 발열에서 熱退까지를 가리킴 동통소실치법은 清熱除濕 舒筋活絡 佐以強筋骨, 처방은 宣痺湯「溫病條辨」方, 조성은 방기 행인 활석 연교 산치 의인 반하 만잠사 적소두피

③ 純癱期 - 제증이 소실하고 單癱癱瘓만 남은 상태를 가리킴 전반기치법은 補脾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益胃 佐以滋補肝腎 强壯筋骨 舒筋通絡 후반기치법은 滋補肝腎爲主 처방은 五痿湯「醫學心悟」方 : 인삼 백출 복령 당귀 의인 맥동 황백 지모 감초, 虎潛丸「丹溪」方 · 호경골 당귀 숙지 백작 진피 귀판 쇠양 황백 지모 우슬 건강

補陽還五湯「醫林改錯」方 황기 귀미 적작 천궁 도인 홍화 지룡

④ 枯痿期 - 癱瘓未愈하고 筋肉위축이 출현 宜滋補强壯 溫通經絡 호잠환 加 육계 制부자 오가피 백출 녹각상 천비해 共研細末 羊肉爲丸

西安에서 변증논치적 원칙을 근거로 본병에 대한 중약치료 38례에 대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

• 처방(①) 麻痺合劑 오사 90g 당귀 서홍화 독활 각 15g

먼저 酒洗한 오사를 沙子炒黑, 나머지 약 暴乾 共爲細末 裝瓶備用

• 복용 日3회 黃酒爲引

6월 - 1세 1차服 0.94g

1세 - 2세 1차服 1.57g

2세 - 3세 1차服 3.125g

3세이상

• 加味黃芪桂枝五物湯 . 황기 계지 항작 생강 대추 오공 전충 물 200cc 煎至 1000cc 早晚空腹用

加減法 發慌加 대청엽 반남근 황금 황백, 煩燥加 구등 용담, 痛加 천마 몰약 유향, 通絡加 지룡 강잠, 抽周加 구등 전충 천마 오공, 지각감퇴 加 閑羊花, 風濕加 우슬 속단 상기생 두충, 病在上肢加 강활 천궁, 病在下肢加 독활 우슬, 身體過衰加 인삼, 出冷汗加 모려 重用 황기(三倍)

하남성에서 家傳淨腹湯으로 小兒下肢癱瘓을 치료한 15례 보고 또 1례 무효 나머지는 4劑로 痊癒者 8례 중상호전 6례 방제조성 시호 삼능 봉출 청피 각1 5錢 지모 지골피 호황련 별갑 귀판 우슬 항작 당삼(혹 백당삼) 진피 각2錢 백출 焦三仙 각 3錢 감초 1錢 蘆根爲引

일반적 사용시는 藥味不增減 用量은 연령이나 정황참작가감 감속성 古浪현 黃羊川 위생병원에서 음양곽탕으로 소아마비를 치료한 보고

• 약물 · 음양곽 12g 오가피 우슬 각6g, 上肢마비 加 강활, 四肢마비 加 계지, 病久加 황기, 급성기加 상기생, 복약과정중 기능단련 配合 영양은 적당량 증가로 효과

提高

八. 針刺爲主治療小兒麻痺症

泰州에서 針刺 穴位注射 電針,推拿 등으로 소아마미를 종합치료한 보고 . 치료방법은

(一) 辨證歸經 循經取穴 分別主次 以主帶次 強壯全身 改善局部

일반적으로 取穴較多 不留針 매일 혹 격일 1次 10~15일爲一療程후 휴식 7일

① 不能獨立 坐或站立者 取穴 신유 대장유 질변 승부 위중 승산 곤륜 한조 풍시 양능 현종

② 不能提腿 혹 跨步者 取穴 . 脾관 복토 족삼리 곤륜 환조 하거허 해계 胆經穴位는 同上

③ 下肢不能外展 足踝不能背屈者

取穴 · 풍시 양릉천 현종 구허 족삼리 하거허 해계

④ 下肢不能內收者取穴 음림 오리 음포 기문 혈해 음능천 삼음교

⑤ 上肢不能上舉及握物者 取穴 견우 견정 비노 곡지 외관 합곡 足外翻取穴 음릉천 삼음교 해계 조해

足內翻 取穴양릉천 현종 곤륜 족림음

足下垂 족삼리 하거허 해계 충양

足根不着地取穴 위중 승산 곤륜 跟平(內外踝連선交跟腱處)

별도로 임맥 독맥 등 腰腹部穴位 명문 腰양관 관원 기해 등 穴에 注重

치료결과 86례중 치유 39례 기본치유 26례 顯效 혹 진보 19례 무효 2례 치유와 기본치유효율 75.5% 달리 관찰한바로는 病期가 짧은자는 치료효과가 좋고 肌力愈好 療效愈高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病期가 1개월이내인 자는 치료효율이 최고였다

結 論

痿證은 指體痿軟無力을 가리킨다 日久한 肌肉萎縮의 一種病證이다 임상에 근거한 각기다른 成因과 임상표현으로 邪熱熏肺 肝腎虧損 脾胃氣虛 濕熱浸淫 絡脈瘀阻 등 型으로 나눈다.

■ 痿, 厥, 癱木에 대하여

病位는 肺 脾 肝 腎 四臟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고 그 병인이 陰虛熱傷津液과 濕熱浸淫陽明이 많다. 正虛爲本이고 邪熱爲標이다

起病이 較急하고 발진이 較快하고 濕熱邪毒 熱津傷肺에 속하니 치법은 淸熱潤燥 養肺益胃 淸利濕熱하며 病史가 較久하고 起病과 발진이 較慢한 것은 비위허약과 肝腎虧損證이 많으니 마땅히 健脾益氣나 補益肝腎하는 것이 실로 만성 痿躄의 중요한 치법이다

婦女子의 産後에 氣血虧損으로 痿가 된 것은 大補氣血하여 榮養筋脈한다

痿證치료는 服藥法外에 침구 추나를 배합하고 운동요법을 가하여 經脈에 氣血이 流通하게 하여 치료효과를 提高한다

해방후 각지에서 痿證의 치료에 대한 적지않은 새로운 방제와 여러가지 치법이 개발되었다 西醫의 重症肌無力에 대하여 軟癱의 중추신경계통 감염후유증 등에 관한 좋은 성적이 이뤄져서 痿證의 변증施治의 발전과 전파를 提高하였다.

▶ 附方

- ① 淸燥湯(東垣十書) : 黃芪 蒼朮 白朮 陳皮 澤瀉 人蔘 茯苓 升麻 當歸 生地黃 麥門冬 甘草 神曲 黃柏 豬苓 柴胡 黃連 五味子
- ② 犀角桔梗湯(雜病源流犀燭) 黃芪 石斛 天門 麥門 百合 山藥 犀角 通草 桔梗 黃芩 杏仁 秦艽
- ③ 麥門淸肺飲(東垣十書 內外傷辨) · 紫菀 黃芪 白芍 甘草 人蔘 麥門 當歸 五味子
- ④ 益胃湯(溫病條辨) 沙蔘 麥門 生地黃 玉竹 冰糖
- ⑤ 虎潛丸(丹溪心法) · 龜版 黃柏 知母 熟地 當歸 白芍 鎖陽 陳皮 虎骨 牛膝
- ⑥ 六味地黃丸(小兒藥證直決) 熟地 山茱萸 山藥 澤瀉 丹皮 茯苓
- ⑦ 鹿角膠丸(醫學正傳) 鹿角膠 鹿角霜 熟地 人蔘 當歸 牛膝 茯苓 菟絲子 白朮 杜沖 虎骨 龜版
- ⑧ 補中益氣湯(脾胃論) · 黃芪 甘草 人蔘 當歸 橘皮 升麻 柴胡 白朮
- ⑨ 瓊玉膏(洪氏集驗方, 引申鐵盞方) : 人蔘 茯苓 生地 白蜜
- ⑩ 玉女煎(景岳全書) : 生石膏 熟地 麥門 知母 牛膝
- ⑪ 加味二妙丸(丹溪心法) : 黃柏 蒼朮 當歸 牛膝 防己 草薢 龜版
- ⑫ 神龜滋陽丸(類證治裁) 龜版 黃柏 知母 杞子 五味子 鎖陽 干姜 爲末以豬骨

髓爲丸

- ⑬ 聖愈湯(東垣十書·蘭室秘藏)：熟地 當歸 白芍 川芎 黨參 黃芪
- ⑭ 大黃吋蟲丸(金匱要略) 大黃 生地 桃仁 芍藥 杏仁 甘草 黃芩 吋蟲 水蛭 蟻螯 蟲 干漆
- ⑮ 清燥救肺湯(醫門法律)：人參 甘草 黑芝麻 石膏 阿膠 杏仁 麥門 枇杷葉 冬桑葉
- ⑯ 二陳湯(和劑局方) 茯苓 半夏 陳皮 甘草
- ⑰ 鐵粉丸(雜病源流犀燭)：鐵粉 銀屑 地骨皮 雷丸 犀角
- ⑱ 天王補心丹(攝生秘剖)．柏子仁 杏仁 天冬 人參 麥門冬 玄參 生地黃 茯苓 五味子 當歸身 丹參 遠志 桔梗
- ⑲ 紫葳湯(雜病源流犀燭)．紫葳 天冬 百合 杜沖 黃芩 黃連 草薺 牛膝 防風 菟絲子 白蒺藜
- ⑳ 金剛丸(雜病源流犀燭)：草薺 杜沖 肉蓯蓉 菟絲子 豬腎
- ㉑ 大補陽丸(丹溪心法)．黃柏 知母 熟地 龜版

► 附 現代研究 主要參考文獻

- ① 江蘇如皋醫院．以縣方馬復錢子湯爲主治急性感染性多發性神經炎 264例(急性感染性多發性神經炎), 江蘇人民出版社, 1979
- ② 樊祥沖·急性感染性多發性神經炎91例, (絳薜醫藥)(2), 1976
- ③ 高文武 中西醫結合治療多發性神經炎, (新醫藥學雜誌), (4), 1974
- ④ 孫筠溪：截雜(脊髓蛛網膜炎) 驗案, (山東中醫學院學報) (1), 1979
- ⑤ 北京市中醫醫院．外傷性截癱方劑(全國中西醫結合工作會議典型事迹摘錄的)附方內部資料, 1971
- ⑥ 鍾新淵·治愈重症肌無力1例, (中醫雜誌) (1), 1962
- ⑦ 張近三等·重症肌無力 100例 證治小結 (醫學情況交流) 1975年 12月
- ⑧ 俞昌正·中藥治療重症無力, (山東中醫學院學報) (1), 1977
- ⑨ 上海虹口區中心醫院中醫科·中藥治療重症肌無力, (醫學情況交流), (12) 1975
- ⑩ 楊蘭水等·中醫對重症肌無力的認識, (河北新醫藥) (2), 1974
- ⑪ 陳樹榮·以馬錢子爲主治療重肌無力 3例報告, (上海中醫藥雜誌) (11) 1964
- ⑫ 孫隆生·四君子湯加味治療周期性麻痺, (浙江中醫雜誌) (2), 1980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 ⑬ 蕭正安·小兒麻痺證의理論探討及臨床經驗介紹, (하르빈中醫)(2), 1965
- ⑭ 西安市第十七中學校, 中醫治療小兒麻痺後遺症38例, 中醫研究院(中醫研究資料簡報)
- ⑮ 河南省扶溝縣醫院 用家傳經驗方淨腹湯治療小兒麻痺症, (浙江中醫雜誌)(7), 1964
- ⑯ 甘肅古浪縣黃羊川衛生院 淫羊藿湯治療小兒麻痺症, (新醫學)(8), 1980
- ⑰ 泰州人民醫院: 針刺爲主治療小兒麻痺症86例, (江蘇中醫)(6), 1980
- ⑱ 廣西醫學園兒科·穴位刺激結扎療小兒麻痺後遺症(廣西衛生)

二. 厥證

가. 定意

厥證은 본래 陰陽失調한데 氣機逆亂함으로 인하여 돌연히 昏倒 不省人事하고 四肢逆冷이 동반하여 나타나는 一種의 病證이다. 발병후 일반적으로 단시간내 소생하는데 소생후 偏癱 失語와 口眼喎斜 등 후유증이 없는데 다만 특별히 엄중한 것은 昏厥시간이 비교적 길고 심지어 회복안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本證이 내상으로 인한 것은 下元虧損에서 연유함이 많고 陰陽이 偏頗한 소치이다. 熱病의 과정에서 陰盛陽虛하거나 陽郁入里해도 발생한다 이외에 氣郁不達하거나 혹 食滯痰湯 瘀血阻滯 등이 모두 陰陽之氣가 不相順接하기에 이르게 하여 厥證이 발생하게 한다

나. 歷史沿革

厥證에 옛부터 熱厥 陰厥 陽厥 煎厥 薄厥 暴厥(大厥 尸厥) 風厥 太陽厥(踝厥) 陽明厥(舒厥) 小陽厥 太陰厥(臂厥) 少陰厥(臂厥 首厥) 厥陰厥 厥痿厥 氣厥 血厥 痰厥 食厥 色厥 蛔厥의 구분이 있었다 이런 명칭으로 역대 의가들이 厥證이라한것들이 中惡에 유사하고 類中風에 유사한 것들이다.

厥證이란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내경이다 「素門 有厥論待篇」을 제외하고도 다른 30여편에도 散見된다 厥의 다른 명칭이 대략 30여종이 있고 그 임상표현이 상

당히 복잡하나 대개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暴不知人 卒然昏倒를 가리킨다 「素門 厥論」에 말한 것은 이렇다 “厥或令人腹滿, 或令人暴不知人” “巨陽之厥則腫首頭重 足不能行 發爲胸仆” 「素門 大奇論」에 “脈至如喘 名曰暴厥 暴厥者 不知與人言”이라 하였다.

두번째 부류는 手足逆冷을 가리킨다. 「靈樞 五亂篇」에 이르기를 人體氣機가 “亂于臂脛 則爲四厥”라하여 四肢逆冷을 말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六經型證을 가리킨다 「素問 厥論」에 서술한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之厥 등이다

언급한 세부류의 厥證中 앞의 두가지는 일찍부터 지금까지 沿用하는데 그중 제3 부류의 厥證은 근대궐증과 의미가 많이 다르다 「素問 厥論」에서 말한바와 같이 “陽明之厥 則癰疾欲走呼 腹滿不得臥 百赤而熱 妄見而妄言” 소위 陽明之厥은 실제로 神志病證을 이르는 말이며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개념이다

「內經」의 厥證에 대한 病機論述은 비교적 심각하다 厥證이 氣機逆亂이라고 인식하고 氣血導行이 悖逆한 소치라 하였다 「素問 生氣通天論」에 이르되 “大怒則形氣絕而血菀于上 使人薄厥” 「靈樞 五亂篇」에 清濁의 氣 逆亂하는 것으로써 여러가지 궐증의 병리를 闡述하였다 이르되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 清濁相干 亂于胸中 是爲大惋 故氣亂于心 則煩心菀默 俯首靜伏 亂于肺 則俯仰喘喝 接手以呼 亂于腸胃 則爲霍亂 亂于臂脛 則爲四厥 亂于頭 則爲厥逆 頭重眩仆”이라 하였다

仲景의 「傷寒論」에 소음편 궐음편에 중점적으로 밝혀 놓았고 「內經」에는 寒厥과 熱厥에 대한 이론과 치법을 밝혀 놓았다

寒厥 熱厥의 병기에 대한 인식이 陰陽氣가 상대적 평형을 잃어서 상호관통하지 못하는 결과이니 그 주요한 표현이 四肢逆冷이라 하였다 이것은 곧 「傷寒論 厥陰篇」에 이른 凡厥者 陰陽氣不順接 便爲厥 厥者 手足逆冷是也 이다. 寒厥證에 대한 논술이 「傷寒論」과 「內經」에 相同하나 兩者의 熱厥證에 대한 임상표현은 차이가 있다

「素問 熱論」에는 열궐을 일러 手足熱이라 하였고 「傷寒論」에는 열궐을 手足冷이라 하였으니 열궐의 병기에 대한 인식이 熱深厥亦深 熱微厥亦微이니 수족 逆冷은 熱邪가 深入함으로 阻湯于黑하여 四肢에 外達하지 못하는 연고이다

仲景이후로 역대의 열궐에 대한 논술이 內經을 따르는 자도 있고 중경을 따르는 자도 있어 각각 기본을 달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중경이 한궐과 열궐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에 대한 치법을 보충하고 정밀하게 논술하며 한꺠용으로 사역탕 당귀사역탕 통맥사역탕 加 저담즙탕 등, 열꺠용으로 백호탕을 내놓아 열꺠치료에 下法치료를 통용하게 하였다

「諸病源候論 中惡病諸候」에서는 여러가지 꺠증을 中惡으로 統括하였으니 그 병인 병리에 대한 논술이 상당히 翔實하니 꺠증과 정신적 소인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모색하였으니 “中惡者 是人精神衰弱 爲鬼神之氣 卒中之也 天人陰陽順理 營衛調平 神守則强 邪不干正 若將攝失宜 精神衰弱 便中鬼毒之氣”라는 말로 肌體의 정신적쇠약이 발병의 기초라 하였고 밖으로 邪毒之氣를 맞는 것이 透發요인이 된다 하여 논점이 內外相關의 병기병인 학설을 비교적 크게 실천한데 의의가 있다

金代 장자화의 「儒門事親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에는 寒厥 熱厥 尸厥 風厥 氣厥 骨厥 臂厥 陽明厥 등 꺠증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술하고 痰厥 酒厥之證에 대하여 보충하고 꺠증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明代 醫家도 꺠증에 대한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으니 꺠증의 이론체계화 변증치료적 방법 등을 날로 발전시켰다

「景岳全書 厥論」의 말처럼 “言厥者 以其內奪 謂奪其五內之精氣也 瘖聲不出也 非肢體儒癱也… 諸論則非風之意可知矣”이라 하였다 꺠증의 한열허실에 대하여 暑厥과 酒厥에 미치기까지 발전시켰고 후세에 꺠에 대한 논점이 그 학설을 따른다

清代에 「醫宗金鑒 新病心法要決 類中風總括」에는 꺠증을 류중풍이라 이르고 尸厥 虛中 氣中 食中 寒中 暑中 中惡 등으로 분별논술하였다 口眼喎斜와 偏廢가 중풍과 꺠증각별의 요점임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林佩琴은 꺠증의 생기는 원인이 간에 있다 하였으니 「類證治裁 厥證」에 이른바 “「內經」之 十二經陰陽之厥詳矣而 仲景以厥隸厥陰 「活人」亦謂手足逆冷 皆屬厥陰 以肝臟主風火 爲厥逆之主, 故厥證種種 類由肝風痰火 沖激閉塞, 以致昏瘖爲多”이다 이는 내경의 요지이고 근본을 말한 것이며 前賢의 말씀을 참고하고 보는 바가 심오하다.

다. 範圍

厥證은 여러질병에서 보이는 一個證候이다. 西醫의 休克 中暑 低血糖昏迷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厥證표현과 본편 내용을 고루 참조하여 辨證치료를 진행하라

라. 病因病機

厥證은 氣機逆亂에서 연유하여 升降失常 陰陽氣不相順接에 이른다. 「證治廣補厥」에 이른것처럼 人身氣血 灌注經脈 刻刻流行 綿綿不絕 凡一晝夜 當五十營于身 或外因之淫 內因七情 氣血痰食, 皆能阻遏運行之機 致陰陽二氣不相順接 而厥作焉한다.

一. 外邪侵襲

六淫과 穢惡之邪를 感受하여 氣機를 逆亂하게 되고 陰陽之氣가 不相順接하여 昏厥이 된다. 이는 곧 「素問 繆刺論」에 이른 “邪客于手足少陰 太陰足陽明之絡… 五絕俱竭 今人身脈皆動 而形無知也 其狀如尸 或曰尸厥” 이니 六淫이 致厥하는데 그중에 中寒이 中暑보다 비교적 많다. 中寒之厥은 嚴寒之時 高寒地區에 多發하고 中暑之厥은 酷暑季節에 多發하고 穢惡之厥은 入廁登塚하거나 礦井之內에 깊이 들어갈때 多發한다

二 七情內傷

七情內傷하여 氣逆하여 병이되고 怒로 인하여 厥이 되는 것도 많다 所願이 안 이뤄지거나 肝氣郁結이 郁久化火하거나 肝氣上逆하여서 혹 大怒로 인하여 氣血이 위로 치달려서 음양이 不相順接하여 厥證이 발한다.

이외에 평소에 정신쇠약한데 外界영향으로 오는 上寒이 더해져서 死尸같이 되고 큰소리듣고 놀라 鮮血이 噴涌함도 昏厥을 發한다.

三. 飲食勞倦

원래 원기가 허한데다 심한 飢餓로 인하여 中氣不足에 이르러 腦海를 失養하거나 혹 폭음폭식으로 인하여 음식이 흥격에 정체하여 上下不通하고 陰陽의 升降이 受阻함도 모두 昏厥에 이르게 한다. 과도한 피로나 수면부족으로 陰陽氣血을 暗耗함도 發厥의 원인중 하나이다

四. 亡血失津

크게 汗吐下하여 氣隨液耗하거나 혹 創傷出血 産後의 大量失血 등이 氣隨血脫에 이르게하여서 陽隨陰消하고 神明無主하게 됨도 厥증이 되게 한다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五 劇烈疼痛

疼痛傷氣도 氣機逆亂하게하여 卒然昏仆에 이르게 한다.

「素問 舉痛論」에 이른것처럼 “寒氣客于五臟 厥逆上泄 陰氣竭陽氣未入 故辛然痛死 不知人 氣復反則生矣”이다 임상상 寒邪疼痛이 厥하게 하는 것 외에도 創傷 氣滯 瘀血疼痛 등도 氣機逆亂시켜서 昏厥에 이르게 한다

六. 痰飲內伏

形盛氣弱之人에 많이 생긴다 酒酸肥甘을 좋아하여 脾胃가 受傷하고 運化失常하여 聚濕生痰에 이르러 痰阻中焦 氣機不利가 日積月累하여 痰愈多則氣愈阻하고 氣愈滯則更甚하니 痰濁이 일시에 上壅하고 清陽이 被阻하여 혼궤이 생길 수 있다.

「儒門事親 指風痺痿厥近世 差玄說」에 이르기를 “有痰如拽鋸聲在咽喉中爲痰厥” 「丹溪心法 厥」에 나타난 “痰厥者 乃寒痰迷悶”

陳士鐸의 「辨證錄 厥證門」에 나타난 肝氣之逆 得痰而厥 등이 이런 類의 증후를 말한 것이다

七 瘀血阻滯

血은 총체적으로 統于心하고 化生于脾 藏受于肝 宣布于肺 施泄于腎하니 肺에서 氣의 推動이 經脈을 下循하여 運行周身한다

오장의 기능장애 氣機運行失常도 瘀血內生에 이르게 한다 어혈이 생긴뒤 왕왕 閉阻經絡하고 瘀塞心竅하여 營衛가 不通하고 陰陽氣血이 不能順接하게 하여 痺증을 생기게 한다.

「醫學入門 厥」에 이른바 “氣逆而不下行 則血積于心胸 「內經」謂之薄厥 言陰陽相薄 氣血奔并而成”은 어혈이 厥이 되게하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厥證의 病因이 여러가지이지만 그 기본 病機는 氣機逆亂이다.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周學海의 「讀醫隨筆 平肝者舒肝也 非伐肝也」에 이르기를 “凡臟腑十二經之氣 火 皆必借肝胆之氣化以鼓舞之 始能調暢而不病, 凡病之氣結血凝痰飲 浮腫 膨脹 痲厥 皆肝之不能舒暢所致也”이라하여 肝氣郁하면 全身之氣가 郁하고 肝氣逆則全身之氣가 皆逆하고 氣血이 함께 위로 走하여 昏不知人하고 陽郁不達則 四肢逆冷한다 厥의 虛證은 肺脾와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대개 肺脾氣虛하면 清陽不升하고 氣

陷于下하고 血不上達하므로 神明失主에 이르러 厥證이 생긴다.

마. 診斷과 鑒別診斷

一. 診斷

모든 辛然昏倒 不省人事 醒後에 無口眼喎斜 無肢體備廢하는데 四肢逆冷이 주증이 되면 모두 瘧證으로 진단한다

二 鑒別診斷

(一) 癇症

癇증은 일종의 발작성 神志異常질병이다. 그 특징은 발작성 정신황홀이다 심하면 돌연혼도 昏不知人 口吐涎沫 兩目上視 四肢抽搐하고 흑 돼지나 양이 부르짖는 소리 내고 移時蘇醒한다

病有宿根하면 반복발작하고 매차 발작때마다 病狀이 비슷하다 厥證과 癇證이 함께 나타나면 비로 모두 卒然昏仆하는 외에 病作之後에 喉中에서 異常叫聲을 반복하여 발작하는 특징에 癇證에만 있는 것이 瘧證과 다른점이다 周學海의 「讀醫隨筆 風厥瘳癇」에 이른 “厥有一愈不發 癲癇必屢發難愈者”는 실로 경험에서 나온것이다.

(二) 中風

中風으로 구안와사 언어 蹇澁 半身不遂하고 심지어 突然昏倒하나 瘧證에는 구안와사가 없고 偏癱不用등 후유증이 없다 周學海의 「讀醫隨筆 風厥瘳癇」에 이른바 “風之爲病其傷在筋 故有口眼喎斜 肢節痿緩之象 厥之爲病 其傷在氣· …故 氣復卽醒 醒卽如常而無遷延之患”이다.

(三) 昏迷

昏迷病人은 발작하기 전에 대개 비교적 重한 질병이 있고 昏迷之後에 病情이 확실히 加重되고 昏迷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단시간내 깨어나지 않는다 깨어난 뒤에는 비교적 重한 原發病이 존재한다 瘧증은 발작전에는 정상인과 같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바. 辨證 論治

■ 痲, 厥, 痲木에 대하여

一. 辨證

(一) 辨證要點

① 辨病因

厥證의 발생에는 항상 확실한 病因이 있어야 한다. 氣厥虛證은 대개 평소에 허약 체질이고 厥劑에 과도한 피로가 있거나 수면부족 출혈이 있고 血厥實證은 失血과 관계있고 항상 大出血證에 이어서 생기고 氣厥血厥實證은 形體壯實者에 많고 발작이 정신자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痰厥은 恣食肥甘 體豐濕盛한 사람에게 好發하고 食厥은 暴食之後에 多發하고, 酒厥은 暴飲之後에 생기며 暑厥은 여름에 폭열이 계속되거나 高溫일 때 많이 생긴다. 色厥은 縱欲無節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病史를 이해하고 病因을 밝혀 살피면 辨清證候에 도움된다

② 辨虛實

虛其虛 實其實은 芻證 치료시 大忌하니 왕왕 생명안위와 관계되니 모름지기 辨別을 清楚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實證表現은 昏厥 氣壅息相 喉問痰鳴 牙關緊閉脈多沈實或沈伏하고, 虛證表現은 혼절하고 氣息微弱 張口自汗 膚冷肢涼 脈沈細弱하다.

(二) 證候

芻證의 종류가 많고 역대의 증후분류가 여러가지이나 본편은 氣血運行障礙의 病機에 病因을 결합하여 氣 血 痰 食 暑 酒 色厥과 中惡의 八類로 나누고자 한다.

二. 氣厥, 實證

(一) 症狀

形體壯實한데 대개 정신자극에서 透發하는 것이 많고 卒然昏倒 不省人事 口噤握拳 呼吸氣粗 或 四肢厥冷 舌苔薄白 脈沈或脈沈弦하다.

(二) 病機分析

본증은 肝氣郁結 氣機上逆 소치이다 氣壅心胸 阻塞清竅 하는고로 卒然昏倒 不省人事 口噤握拳하고, 肝氣上逆 氣機閉塞 肺氣不宜하면 呼吸氣粗하고, 陽氣被郁 不能外達하면 四肢厥冷하고 氣閉于內하면 脈沈하고, 肝氣郁而未暢하면 脈이 沈弦하다.

三. 氣厥虛證

(一) 症狀

眩暈昏仆 面色蒼白 呼吸微弱 汗出肢冷 舌質淡 脈沈數한다

(二) 病機分析

본증은 대개 氣가 素虛함이 多因인데 悲恐 忤로과도 수면부족을 더하거나 혹 氣受寒등의 因素로 透發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氣機가 不相順接 中氣下陷 清陽不升 腦海失養하여져서 眩暈昏仆 面色蒼白 氣息低微 正氣不足之證이 나타난다

四. 血厥實證

(一) 症狀

突然昏倒 不省人事 牙關緊閉 面赤唇紫 舌紅 脈多沈弦한다.

(二) 病機分析

暴怒로 인하여 肝氣上逆 血隨氣升 上蔽神明하고 淸窮閉塞함으로 突然昏厥 不省人事 牙關緊閉하고 赤唇紫 舌紅 脈像沈弦하니 모두가 氣逆血菴하는 像이다 氣厥실증과 血厥실증은 병인이 기본적으로 相同하고 임상표현도 아주 비슷하다. 다만 血厥은 面赤唇紫하고 手足竭和한데 氣厥은 面色蒼白 手足逆冷이 구별점이다 氣血의 관계가 밀접한 연유로 病變時常이 상호 겹치는 고로 二種證型이 氣血同病之證으로 대개 變成한다. 임증시 兩者의 관계에 주의하여 分清主次하라

五. 血證虛證

(一) 症狀

突然昏厥 面色蒼白 口唇無華 四肢震顫 目陷口張 自汗膚冷 呼吸微弱 舌質淡 脈芤或細數無力하다

(二) 病機分析

본증은 鼻衄 咳血 吐血 便血 婦女暴崩 外傷 등 대량출혈 뒤에 많이 생긴다. 大汗이나 吐下뒤에 생기기도 한다. 血虛하면 腦海失養하는고로 突然昏厥한다. 血不養于面하면 面色蒼白하고 口唇無華하고 氣血不能達于四末하고 筋失所養하니 四肢震顫하고, 營陰內衰하고 正氣不固하니 目陷口張하고 自汗肢冷 氣息低微하다. 舌淡 脈細數無力함은 血失過多로 陰傷한 證이다

氣厥虛와 血厥虛證이 모두 확실한 呼吸氣短 乏力倦怠. 脈弱無力 등 氣虛증상이 있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는데 다만 氣厥虛證은 평소 氣虛之體에 많이 발생하고 血厥虛證은 대량 失血뒤에 생기나 양자의 病因上 이러하므로 감별이 곤란하다 氣血互根이니 失血之證이나 氣隨血脫한즉 기혈양허증으로 변성함을 짐작할 수 있다.

六. 痰厥

(一) 症狀

突然昏倒 喉有痰聲 或嘔吐涎沫呼吸氣粗 舌苔膩 脈像沈滑하다

(二) 病機分析

痰阻氣道하고 痰氣相壅하는고로 喉中痰鳴하고 或 嘔吐涎沫하고, 痰濁阻滯 氣機不利하니 胸悶氣粗하다 舌苔白膩 脈像沈滑은 痰濁內阻之證이다

七. 食厥

(一) 症狀

暴飲過食 突然昏厥 氣息窒塞 脘腹脹滿 舌苔厚膩 脈像滑實하다

(二) 病機分析

暴飲過食때문에 食滯中脘 胃氣不降 氣逆于上 清窮閉塞하는 고로 突然昏厥한다 胃府濁氣 壅于胸中하여 肺氣不利하니 氣息窒寒하고 食滯內停하고 氣와 食이 다 그러니 脘腹脹滿한다 苔厚膩하고 脈滑實함은 食滯不消와 濁氣不降之候이다.

八. 暑厥

(一) 症狀

頭暈頭痛 胸悶身熱 面色潮紅하고 이어서 卒仆 不省人事하고 或 譫妄도 있고 舌紅而乾 脈像洪數하고 或弦而數하라

(二) 病機分析

「諸病源候論 中惡病諸候」에 이르되 “夏暑炎熱 人冒涉途路 熱毒入內 與上臟相并 容邪熾盛 或郁痰不宣 致陰氣卒絕 陽氣暴壅 經絡不通 故奄然悶絕”이라 하는데 暑邪를 感受하여 氣熱이 郁逆하고 上犯頭部하는고로 眩暈頭痛이 나타난다 氣熱蒸迫하고 邪熱內閉한즉 胸悶身熱이 나타나고 面色紅潮한다. 暑邪犯心하여 蒙蔽窮한즉 卒然昏仆하고 심하면 섬뚱한다

舌紅而乾 脈傷像弦數 或虛弦而數은 暑熱傷津之像이다.

九. 中惡

(一) 症狀

某種의 穢濁이나 특수환경에 있다가 홀연히 수족궤생 肌膚栗起 頭面靑黑 精神不守 或 錯言妄語 牙口俱緊 昏彙不知한다

(二) 病機分析

이증은 正虛之體에 많은데 不正之氣를 冒犯한 탓이다. 進塚入宙하거나 弔死門喪하거나 或 地窟에 深入하거나 礦井之內하여 나쁜환경의 영향으로 정신이 긴장하거나 或 독기의 침습으로 본증이 된다. 본증과 氣厥의 임상표현이 비슷하나 다만 그 病因이 不同하다

十. 酒厥

(一) 症狀

縱飲不節 飲後昏倒하니 輕者는 能知人하나 重者는 神志昏迷하거나 或 번조하고 或 痰涎如通하고 或 氣喘發熱 脈滑數하다

(二) 病機分析

酒性이 慄惶滑疾하여 氣가 머리에 上沖하여 酒厥이 된다

十一 色厥

(一) 症狀

男女同房하여 昏厥이 생긴 것이다

(二) 病機分析

본증은 中年이후에 多發한다 그 病機는 縱欲竭精하여 精竭于下 氣脫于上함이다 「景岳全書 厥逆」에 이르되 “色厥에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暴脫 또 하나는 動血이다 무릇 색탈중 暴脫者 必以其人本虛 偶因奇遇 而悉力勉爲者有之, 或因相暴日久, 而縱竭精欲者亦有로 故于事後則氣隨精去而暴脫不返 又色厥之動血者 以其血氣并走于上 亦血厥之屬也, 但與大怒血逆者不同 而治法亦有所異 差此因欲火上炎 故血隨氣上…… 其證則忽視暴吐 或鼻衄不能禁止 或厥逆 或汗出 或氣喘 或咳嗽 此皆以陰火上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沖而然” 하였으니 本證의 옛날 기록을 현재에 적용하여 참고하라

사. 治療

一. 治療原則

痿증은 모두가 氣機逆亂 升降失常으로 인하여 陰陽之氣가 不相順接하는 뜻이다. 證因이 陰陽偏衰한 것은 調陰陽하여 扶元氣위주로 하고, 氣實而厥者는 理氣降逆하고, 氣虛而厥은 益氣扶正하고 血瘀而厥은 祛瘀降逆하고, 血脫而厥하면 먼저 그 散亡之氣를 모으고, 因痰 食 暑 酒 中惡등으로 厥하면 割痰開窮 消食和中 祛暑清心 解酒化滯 辟穢開窮之法을 분별 실시하라

二 治法方藥

(一) 氣厥實證

① 治法 · 調氣降逆

② 方藥

溫井水로 소합향원이나 옥추단을 灌服하라 병인이 소생한후 다시 五磨飲子로 理氣降逆하라 方中의 지각 오약 목향은 理氣하고, 빈랑 침향은 降逆한다. 肝胆偏亢하여 頭暈 頭痛 面赤升火가 보이면 加 구등 석결명 자석으로 平胆潛陽하고, 痰多氣壅하면 加 담성 패모 죽력 굴홍 등으로 導滌痰濁하고, 소생후 時時啼哭하거나 哭笑無常하면 加 원지 목신 단삼 산조인 등을 安神定志하고, 흑 감맥대조탕을 습하여 養心潤燥하라

(二) 氣厥虛證

① 治法 · 益氣固本

② 方藥

蔘附湯이나 芪附湯을 灌服하고 동시에 糖井水나 熱茶를 灌服해도 된다 병인이 소생후 四味回陽飲을 먹인다 만약 表虛自汗하면 加 황기 백출하여 益氣固表하고, 汗出不止하면 加 용골 모려하여 固澁斂汗하고 心悸不寧하면 加 숙지 원지 당귀 산조인하여 養血安神한다.

(三) 血厥實證

① 治法 祛瘀降逆

② 方藥

급히 식초나 동변을 火焯하여 取煙熏鼻하라. 동변은 灌服해도 좋다. (男兒童中端尿를 취함) 병인이 소생후 通瘀煎을 쓸 수 있다. 方中에 당귀 홍화 산사 등을 써서 活潑散瘀하고 오약 청피 향부 목향으로 理氣開郁하고 氣行則血行하고 택사로 利水하라

만약 急躁易怒 少寐多夢하면 加 아교 등 석결명으로 平肝安神하고, 風陽內盛하고 頭痛眩暈하면 加구등 국화 질려 구기 생지 등으로 柔肝熄風하라.

(四) 血厥虛證

① 治法 益氣固脫

② 方藥

급히 독삼탕 먹여서 收散亡之氣하라. 혹 당귀보혈탕 쓸수도 있다.

동시에 糖開水를 관복하라

병인소생후 全眞益氣湯去 우슬 加 황기를 참작하여 調治하고 固脫之力을 增強益氣하고, 만약 출혈까지 하면 加 아교 선학초 藕節 천초근 등으로 止血하고, 心悸少寐하면 加 산조인 용안육 복신으로 養心安神하고, 舌盾紅絳하고 口乾少津하면 去 부자 백출 加 사삼 황정 석곡 등으로 養胃生津하라. 본증치료에 益氣를 重視하지 않고 補血 寒涼之劑만 쓰면 효과가 적다

「景岳全書 厥論」에 但用血分等藥 則几微之氣 忽視散失 陰無所主 無生機矣 其或有用寒涼以止血者 必致敗絕陽氣 適足以速其死耳이라 하였다.

(五) 痰厥

① 治法 豁痰開閉

② 方藥

痰在膈上하면 급히 鹽湯써서 深吐하고 흑축 백축 감수를 研細末하여 쓰고 面粉과 섞어 作餅하여 足心에 붙인다.

口角流涎하고 脈沈滑하면 多屬寒痰이니 巴礬丸을 細研하여 調水灌服하라

喉間痰鳴 面赤唇紅 脈滑數하면 多屬熱痰이니 白金丸을 細研하여 調萊菔汁灌服하라.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병인이 소생한뒤 도담탕가감을 쓸 수 있으니 登本清源을 증시하라 「景岳全書 厥逆」에 이르되 “如因火生痰者 宜清之降之 因風寒生痰者 宜散之溫之 因濕生痰者 宜燥之利之 因脾虛生痰者 自宜補脾 因腎虛生痰者 自宜補腎” 하였으니 痰濁을 防하여 滋生한다

厥이 多夾痰으로 연유하면 담결증에 祛痰法만 쓰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기타 각종 협담증에도 蓼을 써라

陳士鐸의 「石室秘錄 死治」에 이르되 “一時卒到 不醒人事是也 此等病是邪氣中之痰迷心竅也”라 했으니 치료법上 진씨가 攻痰과 開心竅를 강조한 바이다 달리 또 「石室秘錄 厥證」에 “治法自宜攻痰爲要 然徒攻痰而不開心竅 亦是徒然 方用 屈迷丹”이라 했으니 方中에 반하 인삼을 같이 써서 攻補를 兼施했으니 痰은 易消하고 氣는 可復이라 토사자를 쓴 즉 正氣가 생기고 邪氣가 散하고 皂莢창포 복신은 開心竅하여 氣回而厥定하게 하고 생강 강초로 和胃調中하였다 立法하고 遺藥함이 頗有巧思하다.

(六) 食厥

① 治法 消食和中

② 方藥

昏厥이 식후 얼마 안되서 생겼으면 鹽湯을 써서 深吐하여 去實邪한다 다시 신출 산삼 보화환 加減써서 치료한다. 方中에 산사 신곡 내복자는 消食하고, 枳殼 창출 후박 사인 등으로 理氣化湯하고, 반하 진피 복령으로 和胃化濕한다. 만약 腹脹하고 대변불통하면 소승기탕으로 導滯通腑할 수 있다

(七) 暑厥

① 治法 解暑清心

② 方藥

본증은 烈日暴暑로 因한 것이 많다. 혹 高溫한 환경탓으로 생기고 혼厥이 되면 즉시 환자를 陰涼通風之處로 옮기고 우황청심환이나 紫雪丹을 涼開水로 調服한다. 이어서 백초탕 혹 청서익기탕을 因證에 따라 골라써서 祛暑清熱 益氣生津하라 暴暑受邪로 邪熱蒸迫于內하고 津液外泄하여 頭暈 心悸 사지무력 면색창백 多汁肢冷 辛烈昏厥 脈傷濡數하면 益氣固脫해야 하는데, 급히 백회 관원 기해를 뜸뜨고 동시에 蓼

附龍牡湯 쓴다. 方中の 인삼은 補氣, 부자는 回陽 용골 모려는 斂汗攝陰한다 절대로 芳香開窮之品은 못쓰니 正氣를 耗傷함을 막기 위함이다. 暑邪傷陰 肝風內動하여 四肢抽擻 汗多口渴 眩暈惡心 小便量少 脈像弦數하면 平胆熄風 養陰清暑가 마땅하다. 처방은 영양각구등탕가감을 쓴다 처방중 영양각 구등 상엽 국화는 清熱平肝 熄風解痙, 生地, 白芍, 甘草로 涼血養肝 緩解攣急하고 ; 西瓜皮解荷葉 卷心竹葉으로 清心解暑한다

그외에 「醫學 心悟 類中風」은 暑厥治法으로 참고할 만하다 “凡人努農于赤日 行旅于長途 暑氣逼迫之卒烈昏倒, 自汗面垢 昏不知人 急用 千金消暑丸灌之 其人立蘇 此藥有回生之功一切暑藥 皆不及此 村落中各宜預備 灌酸後 以益元散清之或以四味香薷飲(香需飲加 甘草) 去 厚朴 加 丹蔘 茯苓 黃連治之”

(八) 中惡

① 治法 辟穢開窮

② 方藥

급히 생강즙에 소합향환이나 옥추단을 調服하거나 酸炭熏法써서 蘇醒後 곽향정기산을 參작하여 쓴다

暑厥환자가 暑濕穢湯之氣郁閉로 因하여 清窮不利하면 工證이 中惡과 유사하니 본 증치료에 참조할만하다

(九) 酒厥

① 治法 解酒化滯

② 方藥

급히 鹽湯써서 深吐하게 한뒤 梨汁 綠豆汁 濃茶를 交替灌之하라 이어서 酒濕을 分消하고 和中健脾之劑로 갈화해성탕을 쓴다 方中の 갈화로 解酒하고 邪가 肌表로 나가고, 二苓 澤瀉로 淡蔘하여 邪가 소변을 따라 나가게 하고, 다시 사인 백두구 청피 진피 목향 건강으로 調氣溫中하고, 인삼 백출 신곡으로 補脾健胃하여 酒積에 傷脾之證에 적용한다

모름지기 酒厥之증을 사람의 체질이 다름따라 寒化와 熱化로 나누어서 본방을 비위허한 中陽不振 濕從寒 化之證등에 적용한다. 가령 濕從熱化일것 같으면 濕熱內盛하고 面赤煩熱 口渴飲冷 등증이 보이는데 당연히 辛溫之品을 減去하고 황국 황련 등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清熱之藥을 참작하여 加한다 혹 抽薪飲을 골라 쓴다 처방중 황금 치자 황백 목통택사는 清熱利濕하여 邪가 小便따라 分利하고, 疔각으로 行氣化濕하고 석곡 감초로 生津止渴한다 이외에 枳棋子는 解酒를 잘하여 主方中에 配入하여 응용하고 혹 단독 사용한다

(十) 色厥

① 治法 益氣固脫

② 方藥

暴脫에는 益氣固脫로 치료한다 독삼탕을 자주 먹인다 陰火上沖 鼻衄不止에는 一陰煎을 가감하여 쓴다 方中의 생지 맥문 지모 백작약 지골피는 滋陰清熱하고 숙지구감초로 滋補精血한다.

陰竭于下 火不歸源하면서 별도로 煩躁脈證 吐血 衄血하고 昏厥不醒하고 病勢重危하면 鎮陰煎을 쓸 수 있다. 처방중 숙지구감초로 滋補精血하고 牛膝로 引血下行하고 육계 부자로 引火歸源한다

三. 其他治法

(一) 單方驗方

무릇 氣厥 痰厥 暑厥 中惡의 實證에 속하는 것은 모두 생반하나 皂莢가루를 조금 鼻中에 吸入하여 噴嚏시키면 不已한다 혹 창포가루를 吸鼻中하고 계피가루를 舌下에 넣고 아울러 창포根汁을 灌服하는 방법으로 이 方法이 通窮醒神之效가 있다

(二) 針灸

厥中의 탐구중에 침구가 내복약에 좋은 효과를 내고 간편하며 유효하니 이를 중요한 구급조치의 하나로 시술한다 그중 灸法은 回陽救逆 溫陽散寒작용이 있어 脫證과 寒邪阻閉之證에 상용한다 針刺는 능히 開閉通陽하여 閉證에 많이 쓴다.

• 灸法常用穴位 · 백회 신궤 관원 기해 족삼리 灸法운용시 일정한 약물을 가하여 慰敷하여 치료효과를 증강하였다.

오수유와 식염을 炒燙하고 臍下를 布包慰하거나 혹 臍中에 식염을 채우고 蒜艾로 灸하고 혹 호초가루를 臍中에 채우고 고약으로 封上하고 熱慰한다

灸法의 功效에 대하여 「幼幼集成 回生艾火」는 높이 평가하였는데 凡男婦一切의 中風 中痰 氣厥 등증 虛寒竭脫凶危之候에 적절히 사용하면 起死回生之功이 있으니

輕視하지 말라 하였다

• 刺針常用穴位 . 인중 내관 백회 소요 심선 심정 등 邪實閉盛하면 심선혈에서 少量을 效血함이 좋다

• 耳針 皮盾下 腎上腺 내분비 交感 心肺 升壓點 호흡점.

다. 轉歸及預後

厥證의 轉歸에 중요한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陰陽氣血相失이고 나아가서 陰陽離絶하여 一厥不復의 死證으로 발전하는 고로 「素問 舉痛論」에 有氣不復返則死라고 말하였다

두번째는 陰陽氣血失常이니 혹 中氣下陷하고 혹 氣血痰瘀 등 邪氣內閉 氣機逆亂 함인데 다만 아직 陰陽이 離絶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류의 證에서 生과 死는 정기회복여부와 치료조치의 否得當이 결정한다 만약 정기가 회복되고 치료가 합당하면 기가 돌아와 살고 그렇지 않으면 氣機逆亂이 加重되어 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다.

세번째는 각종 증후가 시간에 따라 轉化하는 표현이니 氣厥과 血厥의 實證일 것 같으면 통상적인 轉化로 氣滯血瘀之證이 되고, 失血하여 厥이 되면 통상적인 轉化로 氣隨血脫之證이 되고, 氣血痰瘀 등 邪氣郁閉之移하면 轉이 될 수 있으며 다만 轉化하여 內閉外脫之證이 될 수도 있다.

厥證의 예후에 관련하여 발병후에 호흡이 비교적 평화스럽고 맥상이 有根하면 생 반하 세신 조각 석창포가루를 吸鼻取噴하여 재채기를 자주하면 예후가 양호하다. 그 반대이면 證 발생후 호흡이 미약하고 久久一息하여 심하여 鼻中에 無氣이면 肺氣已絶이라 설명하고, 혹 怪脈이 보이거나, 혹 如屋之漏 . , 혹 虯游魚翔 . 하고, 혹 인영 촌구에서 跌陽之脈이 全無하면 心氣已絶이라 설명하고, 혹 手冷過肘 足冷過膝 唇口指甲青黑하면 음양之氣가 지독하게 不相順接하다고 설명된다 病情이 고무 위중하게 나타나면 예후가 좋지않다.

四 預防과 護理

생각이 狹隘하고 감정이 쉽게 격동하면 평시에 마음수양을 하고, 일에 조급하지 말고, 不如意해도 초조하지 말며, 화내지 않아서, 기혈이 위로 치달려 厥이 됨을 예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방하라. 기혈이 허약하면 勞逸하지 않게 주의하고 수면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하게 주리지 말아야 한다 정신이 虧虛하고 감정이 脆弱하면 弔死門喪에 참가하지 말고 入廟登塚하지 말아서 나쁜영향을 받아 혼厥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 盛夏의 계절에 高溫作業을 진행하지 말고 中暑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음식을 절제하며 음주를 조절하고 房事를 절제하는데 酒厥病의 전력이 있었으면 평생 조심해야 한다 일단 厥증이 발생하면 식구와 주변사람들이 惊惶하여 失指하지 않기 위해 심호흡하라 뜨거운 날이나 고온환경에서 발생할 것 같으면 응급으로 환자를 陰涼通風之處로 옮겨라 陰동설한에 야외에서 생기면 응급으로 환자를 따뜻한 실내로 옮기고 주의하여 保溫하라. 喉間痰鳴하면 吸痰을 때맞춰 해서 呼吸道를 通暢하게하여 질식사망을 막아라

▶ 附 寒厥熱厥

광의적 의미의 厥증에 寒厥과 熱厥이 在內함을 포괄한다 다만 한厥, 열厥은 手足逆冷이 主證이 되는데 前述한것처럼 卒然昏倒 不醒人事하는 厥證으로 각각 특징이 있다

寒厥이란 이름은 「素問 厥論」에 처음 나온다 역대 의가의 한厥에 대한 논술을 종합하면 陽虛陰盛으로 생기는 厥증이라고 말한다 외감열병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수족厥병 오한 蜷臥 下利清穀 口不渴하나, 혹 身冷蜷臥 腹痛面青 指甲清暗하고, 심하면 혼厥 舌多盾淡苔潤 脈多微細하거나 微細欲絶하니 치료는 溫陽益氣위주로 한다 血虛寒凝하에 養血和榮해야 한다 사역탕 삼부탕 통맥사역탕 부자리중탕 당귀사역탕 등을 分別選用한다

熱厥證에 대해 두가지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邪熱過盛을 가리킴이니 陰分 부족소치이며 주증표현이 手足熱(소문의 厥론에 나옴)이다

둘은 邪熱過盛으로 陽郁于裏하여 不能外達하는 소치이다 주증표현이 手足逆冷이다 본편에서 말하는 열厥은 상한론의 立論에 의거한 것이다

임상표현은 수족냉 맥沈伏按之滑, 혹 畏熱 혹 渴欲飲水, 혹 揚手擲足 번조不得眠 胸腹灼熱 便閉尿赤 등이다

치법은 宣通郁熱이고 輕하면 사역산 重하면 백호탕 대승기탕 쌍해산 양각산 등을 쓴다

手足逆冷은 한결과 열결의 공통적 임상현상이지만 양자의 病性에 본질적 구별이 있다 辨證을 잘못할 것 같으면 以熱治熱 以寒治寒으로 亂投方藥하게되어 엄중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어찌 구별하지 않을 것인가? 熱厥에 비록 手足冷해도 흉중에는 灼熱 渴欲飲水 舌紅乾燥하고 심하면 舌乾黑而有芒刺하고 소변莫赤하고 더 심하면 黃赤而濇發하고 大便閉結한다. 寒厥이면 無裏熱이니 臨證時 반드시 四論을 參하여 상세히 辨識하면 양자의 구별이 어렵지 않다

五. 現代研究

급성순환 衰竭로 休克(쇼크)함이 특징인 일종의 종합증인데 중요한 점은 微순환 기능장애이며 병자의 표현이 神志呆鈍 臉色蒼백 사지濕冷 맥박細數 혈압강하 노량 감소이다 休克은 임상표현에 근거하면 中醫의 證이나 허탈범위에 속한다. 역대醫案中에 적지않은 수의 유사 休克환자 치험 성공사례기록이 있고 현대와서도 대량의 임상실천과 실험연구자료로 증명된 中의중약침구 등이 休克치료의 유효한 방법이니 이를 계승 發揚整理하고 효과를 提高하여야 한다.

(一) 余氏가 소개한 抗休克制劑 · 生脈注射液(石方新制劑)

- ① 製法 . 인삼 100g 맥동 312g 오미자 156g 주사액적량 製成 1000ml 1ml당 생약 0.57g
- ② 用法 . 매회 2~4ml 근육 혹은 정맥 주사
- ③ 功用 . 益氣斂汗 養陰生津 強心升壓
- ④ 主治 . 氣陰兩虛 汗多休倦 口乾 脈細弱 아울러 휴극 허탈에도 可用

동물실험으로 생맥주사액이 強心升壓작용있음 증명 약리연구로 생맥주사액이 구급성 失血性 休克에 대한 확실한 승압작용과 마취회복 능력과 심장수축능력을 증강 시킴을 확인

(二) 四逆주사액(古方新制劑)

- ① 製法 . 부자 200 건강200 감초 200 주사水적량 製成 1000ml
- ② 用法 . 1회 2~4ml 근육 정맥주사 매 1~2小時에 1회, 후 30ml 加 10% 포도당액 500ml
- ③ 功用 . 回陽救逆 強心升壓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④ 主治 : 사지궤냉 大汗淋漓 맥微欲絶 血壓抵혹休克 동물실험으로 사역주사액이 強心昇壓과 微순환개선작용이 있어 休克치료에 효과있음 증명

⑤ 약리연구 : 본액이 구급성 失血성休克에 확실한 升壓작용이 있고 마취회복과 심장수축력을 증가시킴 확인. 休克에 본액을 써서 안정이 빠르고 부작용 없음.

⑥ 升壓湯 . 부자 15 황정30 감초 31g 水煎內服 日 2~3회 저혈압환자 치료에 쓸 수 있음.

(三) 枳實注射液(호남의학원)

① 제법 : 지실 1000g 주사용 증류수 2500ml까지 1ml당 原생약 4g

② 용법 · 침이나 休克에 일반적으로 쓰는 抗休克 치료를 안쓰고 일반적으로 본액 4~20g(按 원생약즙)을 먼저 주사하고 이어서 정맥에 점점 주입(혈압이 적정하게 유지될 정도로)

③ 功用 · 微순환개선. 血壓升高

④ 主治 : 休克(감염성 休克 心源성休克 과민성 休克 포괄). 면색창백 出汗 心悸 사지궤냉 맥微細 저혈압 혈압측정 不出로 표현되는 休克에

⑤ 약리연구 : 돼지, 쥐, 새 등의 심장에 輕度の 冠脈流量증가와 확실한 심장수축력 증가작용이 실험으로 확인됨.

아울러 慢心率が 能減하고, 心輸出量증가와 비교적 지구성있는 승압작용이 있고, 心 腦 腎 등 중요기관의 血流量 증가도 확인, 부신피질호르몬에 비하여 衛律문란에서 본약이 비교우위효과가 우위 있어 안전범위가 크고 부작용 독성 없어서 이는 유효한 抗休克 약물임

(四) 抗休克合劑(북경중의 연구원)

① 제법 . 홍삼 맥동 오미자 부자 건강 구감초 육계

② 용법 日 3회

③ 功用 回陽救逆 益氣養陰

④ 主治 · 心悸 氣短 사지 궤냉 出汗 맥微細 저혈압 休克

본방은 사역탕승생맥산 加 육계로 조성됨, 부자로 溫陽, 건강으로 輔, 육계로 부자의 回陽之力증강, 홍삼으로 補氣固脫, 맥동으로 養陰, 오미자로 斂汗

생맥산과 사역탕이 동물실험 통해 강심승압 작용있음 증명되고 아울러 周圍순환

이 개선된 확인

(五) 抗休克 1號方(요령중의 학원)

인삼(당삼) 맥동 건강 구감초 水煎服, 요령중의 학원에서 본방으로 休克을 치료하여 알게 된 중요효과는 혈관확장 심근 수축력증강으로 微순환개선이 되고 조직의 혈류灌注능력증강이 心搏出量을 증가시켜 혈압을 升高시켜 증상을 완해 시킴.

(六) 抗燒傷合劑(안휘의학원)

① 제법 당삼 9 맥동 9 오미자 15 황기 15 금은화 31 산조인 원지 산수유 당귀 홍화 단피 생지 석곡 택사 죽엽 각 9g

② 용법 10배량의 물로 煎煮兩次 짜내어 농축하여 100ml 만들어 식은 후 1% 茶甲酸納 防腐備用 처음에 60ml 이후 매회 30ml 日3~4회 口服

③ 功用 益氣滋陰 清熱解毒 活血化瘀 強心升壓

④ 主治 . 燒傷으로 인한 休克

上述한 여러가지 抗休克方은 高方新制劑에 속하는 것도 있고, 새로 창제된 驗方도 있으나 자료설명을 따르자면 중의가 위급할때 중증치료에 비교적 효과 있어 不斷히 發揚提高되고 있다 한궐과 열궐의 치료에 대하여 변증논치적 원칙을 감안하여 益氣固脫 回陽救逆으로 한궐증을 치료하나 고금에 상용하던 유효한 방법을 응용하여 清熱生津하고 存陰治法으로 急下하고, 백호탕 승기탕 등의 처방으로 열궐로 표현되는 休克을 치료하여 근년에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李氏의 보고에 의하면 1례의 급성출혈성 胰腺炎에 并發된 마비성 腸梗阻中毒性 休克환자가 복부에 고도의 膨隆이 있어 升壓약을 쓸 수 없는 靖황下에 대승기탕에 황련 도인 생강수를 加하여 급히 쓰니 복약후 28시간內에 臭穢液體를 배출하고 休克이 개선되고 혈압이 120/80mmHg로 상승하였다 별도로 1례의 직장암 수술후 복막감염 休克에 써서 急下 存陰하고 위급한 국면을 모면하였다 周氏의 유사한 보고에는 대시호탕에 생맥산을 습하여 1례의 노년감염 休克환자를 치유하였는데 清除毒素 有效血容量 보존에 清熱과 攻下가 유리하고 가능함을 인식하였으며 微순환개선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休克치료에 침구는 중요한 구급수단의 하나이다

周氏의 종합보고에 의하면 耳針 電針 灸法이 능히 경락을 통하는 작용이 있어 疏通氣血 調整陰陽으로 休克이 치료된다.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灸法은 溫通經絡 回陽舉陷하는 작용이 있어 脈回汗止하기까지 灸條로 灸하는데 常用穴位는 대개 기해 제중 백회 관원 등이다 전침취혈은 소요 내관이고 備用取穴은 인중 중충 용천 족삼리이다. 전침은 능히 機體細包의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며 신진대사를 제고하고 피부온도를 높여 微순환개선작용이 있다

란주의학원 二院 내과에서 重型大葉肺炎감염성 休克에 걸린 노년환자를 구한 한 가지 레에서 혈관활성약을 썼으나 무효라 抗休克하는 西藥을 안쓰고 소료를 刺針하고 耳針으로 皮질하 腎上腺區에 10分하니 혈압이 0에서 70~60/40~30으로 조금씩 상승하여 20 小時를 유지하여 병인이 혼미를 회복하고 清醒하여 마침내 나왔다

耳針常用穴은 腎上腺 升壓點 皮質下, 心 등이다. 備用穴은 갑상선 激素點 神門 폐간 交感 등이다 방법은 상용혈 위주이고 兩耳를 交叉取穴하고 間歇留針하고 1~2 小時 유침하여 효과없으면 備用穴을 加한다.

小 結

厥證은 陰陽失調 氣機逆亂으로 생겨서 寒熱昏倒 不省人事하고 혹 四肢逆冷하는 특징있는 일종의 病증이다 임상표현이 중풍과 癱瘓 昏迷 등의 비슷한 점이 있으니 주의하여 감별해야 한다.

궤증의 종류에 관한 고전기록이 많으나 본편은 氣血痰食暑酒中惡色厥 등 증후 변증논치에 그치고 별도로 열궤와 한궤를 논하였다

예방에는 병인적 예방이 중요하다. 正氣회복, 여부가 치료가능 여부이고 본증의 轉歸와 예후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해방이래 中醫가 休克과 유사중증의 치료중 얻은 양호한 결과에서 중의 증약으로 궤증과 휴극을 치료하는 光明한 前景을 보인 것이다

▶ 附方

- ① 藜合香丸(和劑局方) 白朮 青木香 烏犀角 香附子 朱砂 河黎勒 白檀香 安息香 沈香 麝香 丁香 華拔 藜合香油 熏陸香
- ② 玉樞丹(藪亂論) . 山慈姑 五倍子 千金子箱 紅芽大戟 麝香
- ③ 五磨飲子(濟生方) 檳榔 沈香 烏藥 木香 枳室
- ④ 甘麥大棗湯(金匱要略) . 甘草 小麥 大棗

- ⑤ 蓼附湯(正體類要) 人蔘 附子
- ⑥ 芪附湯(魏氏家藏方)：黃芪 附子
- ⑦ 四味回陽飲(景岳全書) 人蔘 附子 干姜 炙甘草
- ⑧ 通瘀煎(景岳全書)·當歸尾 紅花 山查 老葱 麝香 紅棗 鮮姜 黃酒
- ⑨ 獨蓼湯(景岳全書)·人蔘
- ⑩ 當歸補血湯(內外傷辨惑論)·黃芪 當歸
- ⑪ 全真益氣湯(湯氏錦囊)·人蔘 麥門 五味子 熟地 白朮 牛膝 附片
- ⑫ 巴研丸(醫宗金鑒) 巴豆 白研
- ⑬ 白金丸(本事方)·白礬 郁金
- ⑭ 導痰湯(濟生方) 橘紅 茯苓 半夏 甘草 枳實 竹茹 大棗
- ⑮ 屈迷丹(石室秘錄) 人蔘 半夏 兔絲子 艾葉 菖蒲 茯神 生薑 甘草
- ⑯ 神朮散(醫家心悟)·蒼朮 陳皮 厚朴 甘草 密香 砂仁
- ⑰ 保和丸(丹溪心法)·山查 神曲 半夏 茯苓 陳皮 阿膠 蘿菔子
- ⑱ 小承氣湯(傷寒論) 大黃 厚朴 枳實
- ⑲ 牛黃清心丸(痘疹世醫心法) 牛黃 朱砂 生黃連 黃金 山梔子 郁金
- ⑳ 紫雪丹(太平惠民和劑局方)·黃芩 寒水石 磁石 滑石 石廣 犀角屑 羚羊角屑 青木香 沈香 玄蔘 升麻 甘草 丁香 骨硝 硝石 麝香 朱砂
- ㉑ 白虎加人蔘湯(傷寒論) 石膏 知母 甘草 粳米 人蔘
- ㉒ 清暑益氣湯(溫熱經珠)·西洋參 石斛 麥冬 黃連 竹葉 荷梗 知母 粳米 西瓜衣衣
- ㉓ 參附龍牡湯(驗方)：人蔘 附片 龍骨 牡蠣
- ㉔ 羚羊鉤藤湯(通俗寒論) 羚羊角 桑葉 川烏 生地 鉤藤 菊花 白芍 甘草 鮮竹茹 茯神
- ㉕ 香薷飲(和劑局方)·香薷 扁豆 厚朴
- ㉖ 益元散(宣明論方)·滑石 甘草
- ㉗ 千金消暑丸(醫學心悟)·半夏 茯苓 甘草
- ㉘ 藿香正氣散(和劑局方) 藿香 紫蘇 白芷 大腹皮 茯苓 白朮 陳皮 半夏 厚朴 桔梗 甘草
- ㉙ 葛花鮮醒湯(蘭室秘藏)·木香 人蔘 豬苓 白茯苓 陳皮 白朮 干生姜 神曲 澤瀉 青皮 砂仁 白蔻 葛花
- ㉚ 抽薪飲(景岳全書)·黃芩 石斛 木通 梔子 黃柏 枳殼 澤瀉 甘草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 ③① 加減一陽煎(景岳全書) . 生地 芍藥 麥冬 熟地 炙甘草 知母 地骨皮
- ③② 鎮陽煎(景岳全書) . 熟地 牛膝 炙甘草 澤瀉 肉桂 附子
- ③③ 四逆湯(傷寒論) : 附子 干姜 甘草
- ③④ 通脈四逆湯(傷寒論) . 炙甘草 附子 干姜 葱
- ③⑤ 附子理中湯(和劑局方) 人蔘 干姜 甘草 白朮 附子
- ③⑥ 當歸四逆湯(傷寒論) . 當歸 桂枝 芍藥 細辛 甘草 通草 大棗
- ③⑦ 四逆散(傷寒論) 柴胡 白芍 枳實 炙甘草
- ③⑧ 白虎湯(傷寒論) . 知母 石膏 甘草 粳米
- ③⑨ 大承氣湯(傷寒論) . 大黃 厚朴 枳實 芒硝
- ④⑩ 雙解散(宣明論方) : 滑石 甘草 防風 川芎 當歸 白芍藥 大黃 薄荷 麻黃 連翹 芒硝 石膏 黃芩 桔梗 荊芥 白朮 梔子 葱白 豆豉 生薑
- ④⑪ 涼膈散(和劑局方) 川大黃 補硝 甘草 山梔子仁 薄荷葉 黃芩 連翹

× 附 現代研究 主要參考文獻

- ① 余冰敏等 中藥強心升壓抗休克制劑介紹, (江蘇醫藥 中醫分冊)3 31, 1979
- ② 李維蕃 對“急下存陽”的几点初步認識, (新病藥學雜誌) 5 38, 1978
- ③ 周冰營 感染性休克的中醫藥治療(綜述), (全國醫內科急症治療交流論文集) 362, 1979

三. 麻木

가. 定意

麻木이란 肌膚, 肢體에 發麻하거나 痛痒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疾患의 一種이다
대개 氣虛失運, 血虛不榮, 風濕痺阻 痰瘀阻滯로 因한 것이 많다

나. 歷史沿革

「內經」에는 不仁이란 症狀의 記載는 있어도 麻木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靈樞, 壽夭剛柔篇」에 이르기를 “寒痺로 病이 된 것은 留而不去하고 時痛하며 皮不仁한다” 하였고 「素問, 痺論」에 이르되 “痺在骨則重 在于血則凝而不流, 在于筋則屈不伸, 在于肉則不仁, 在于皮則寒”이라 하였다 소위 不仁이란 것은 皮頑하고 不知有無의 뜻이니 후세에서 麻木이라 칭하는 것이다

「內經」의 인식은 不仁의 病因 病機를 營衛之氣의 不行을 중요시한다

「素問, 痺論」에 이르기를 “其不痛不仁者 病久入深 營衛之行澁, 經絡時疏, 故不痛, 皮膚不營, 故爲不仁”이라 하였다.

「素問, 逆調論」에는 이르기를 “營氣虛則不仁, 衛氣虛則不用, 營衛俱虛則不仁且不用”이라 하였다

漢, 張仲景의 「金匱要略 中風歷節脈症并治」篇에 風邪中絡 可致 肌膚不仁이라 하였다

「上書 血痺虛勞脈證并治」篇에 말하기를 血痺를 外症身體不仁이라 主張하고 침구 치료로 引陽氣하라 하고 陰陽 形氣가 모두 부족하면 黃芪桂枝五物湯으로 通陽行痺하라 하였다.

隨代 巢元方이 지은 「諸病源候論 風不仁候」에는 不仁의 原因을 “榮氣虛 衛氣實한 데 風寒이 肌肉에 入하여 血氣가 行不宣流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肌膚麻木을 不知痛痒이라는 임상表現을 썼고, 形象을 묘사하기를 “搔之皮膚, 如隔衣是也”라 하였다 同書 諸癩病候에 不仁을 癩病初起主要症狀으로 보고 表現을 “肌肉頑痺” “針灸不痛” “或在面目, 羽羽變變, 或在胸頸, 狀如蟲行”이라 하였다

唐宋時代의 「千金方」 「外治秘要」 「聖惠方」 「三因方」 등에 前人之說을 널리 모았으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니 不仁은 痺症으로 作하여 中風 脚氣 麻風 등 여러 질병의 一個症狀으로 보고 治法 方藥에 前人的 것에 비하여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千金方」에는 不仁을 頑麻로 칭하였고 이미 알려진 中風과 痺症의 病症 半體不仁 四肢不仁 等症에 “風邪走注皮膚中如蟲行”이란 표현이 보태진다 同書 卷八 風懿에 皮中動淫淫如蟲啄 「同書 卷七 風毒脚氣」에 “是前者爲木 卽肌膚頑而無知 · 後者爲麻, 郡肌膚如蟲行之狀”이라 하여 후세에 麻木을 分治하는 근거가 되었다 “麻木”이란 말은 唐宋의 方書中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許叔微의 「本事方 卷一」에 “風熱成歷節, 攻手指, 作赤腫麻木”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金元時代에는 각기 다른 류과간에 病因 病機 治法에 관점이 대립하여 각각 다른 見地에서 다소간 발전이 있었다. 이 시기의 저작에 麻木이란 單語가 不仁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麻木不仁이라 合稱하기도 하였다. 劉河間의 「宣明論方 諸痺症」에 이르되 “痺乃風寒濕三氣相合, · 或走注四肢, 皮膚不仁, 屈伸不便”이라 하였고 張子知之의 「儒門事親,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에는 麻木을 諸痺의 共同症狀으로 인식하여 “夫痺之爲狀 麻木不仁 以風寒濕三氣合而成之”라 하였고 李東垣의 「蘭室秘藏, 卷中」에는 麻木은 대부분이 氣虛에서 유래한다고 하며 “如繩縛之久 釋之覺麻作而不敢動, 良久則自己, 以此驗之 乃氣不行”이라 하고, “補其肺中之氣, 則麻木自去矣”라고 治療上 주장이 있다

「朱丹溪集諸家之經驗」에는 麻와 木은 응당 分別해야하고 “麻固然由氣虛所致, 木則爲濕痰死血阻于血脈經途而成”이라하여 치료에 한가지만 고집하지 않았다.

明代이래에는 諸家の 저작에 “麻木” 독립된 병명이 되는데 단계의 설을 따름이 많아 麻와 木이 응당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李挺의 「醫學入門 卷四 痺風」에 이르기를 “蓋麻述之痺 氣亦不覺流行也”라 하였고 葉文齡의 「醫學統旨」에 다시 명확히 말하기를 “麻爲木之微 木爲麻之甚”이라 하였고 本病의 치료방면에 이 시기에 점차 계통과 조리가 세워졌다

辨症上에 있어서도 汪机의 「醫學原理 痺門」에 麻木에 대하여 인식하기를 비록 邪在肌膚라도 “有氣虛不能導血榮養筋而作麻木者, 有因血虛無以榮養筋肉, 以至經墜凝滯而作麻木者”하였다 孫一奎의 「赤水玄珠 麻木」에 다시 이르기를 “亦有氣血俱虛 但麻而不木者 · 亦有虛而感濕, 麻木并作者 又有因虛而風寒濕之氣乘之 故周身麻木攣痛并作者”하여 구분하고 論治도 각각 중점이 다르다

清代에 이르러 張璐의 「張氏醫通麻木」에 이르되 “麻則屬痰屬虛 本則全屬濕痰死血, 一缺不知痛痒 若木然微似”라 하였다.

沈金鰲의 「雜病源流犀燭, 麻木源流」에 麻의 病因을 가리켜 “氣虛是本 風痰是標”라 하고 木의 연유인즉 “死血凝滯于內, 而外挾風寒 陽氣虛敗 不能運動”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本病은 대개 本虛標實症에 속하고 또 대개 因虛而致實이라 하였다. 즉 氣血先虛의 情況下에서 風寒濕邪가 乘虛而入하여 “風痰聚焉 死血聚焉”한 것이다.

치료상에 있어 일반적인 주장은 補助氣血하여 培本之要라 하고 脾氣行血暢하면 頑麻가 自制하니 消散만 하는 것은 不可하다. 症候分類上으로도 「醫宗金鑑, 雜病心法要訣」에 氣實麻木 氣虛麻木으로 나뉘서 論治하였고 「類症治裁」에도 이미 氣虛 血虛 氣滯 死血 濕痰 痰瘀互結 暑傷元氣 冷風 寒濕 濕熱로 論治하였고 또 發病部位도 分別하여 手足 手指 肌肉 面 口舌 腹皮 등으로 選方하여 麻木의 辨症과 治療를 明晰하게 하였다.

다. 範圍

本病은 症狀으로 疾病이름을 命한 것이다. 西醫에서 비슷한 부류는 多種의 結締組織病(類風濕性關節炎 結節性多動脈炎 硬皮病 등) 營衛障礙疾病(脚氣病 등) 代謝及 內分泌障礙 질병(糖尿病 甲狀腺機能減退 肢端肥大症 등)에서 기타질병(급만성감염 腫瘤)에까지 미치는 질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多發性神經尖의 周圍神經損害이다.

麻木은 주위 혈관 病變중 하나로서 多發性대동맥尖 혈관 폐색성맥관염 등이다. 고혈압병에서 생기는 뇌혈관 병변에서도 麻木은 통상적으로 主證 兼證이 된다.

라. 病因病機

麻木一증은 氣血의 病變에 속한다. 임상상 常見하는 正虛邪實虛實夾雜하는 복잡한 병리변화이다. 아래와 같이 分述해본다.

一. 氣虛失運

飮食勞倦 損傷中氣 . 房室不節精虧氣少는 모두 氣虛하게 한다. 氣虛하면 衛外가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失固하여 易致邪侵하고 氣虛하면 無力하여 血의 運行을 推動하지 못하여 經맥과 肌膚에 氣血의 溫照와 濡養이 도달하지 못하여 麻木의 증상이 나타난다.

二. 血虛不榮

素體血虛나 産後 病中에 失血傷津하여 혹 久病만성失血로 因하는 血虛가 직접원인이다 血虛하면 經맥이 空虛하여 皮毛肌肉에 失養하여 麻木感이 나타난다. 血虛하면 氣無所附하고 氣傷하면 血耗하는 등 氣血이 相依함으로 인하여 氣血兩虛證이 常見한다

三. 風濕痺阻

風寒濕邪가 人體衛表의 空虛를 들 다 침입하여 肌表經絡에 머물러 기혈의 運行을 방해하면 疼痛 麻木 重着등 증이 된다.

四. 痰瘀阻滯

痰瘀가 이미 생겨서 왕왕 한곳에 結聚하면 留于經隧하고 關節에 氣血流通을 阻遇하면 久麻久木이 된다 두가지 중 痰의 變化가 많으니 痰濁과 外風이 相合하면 風痰이 되는데 久停不去 深入骨骸하면 頑痰이 되고 蓄而化火하여 痰熱 痰火가 된다.

종합적으로 麻木一證은 氣血虧虛가 근본이고 風寒濕邪와 痰瘀이 標가 된다 麻木의 病因은 비록 多端하나 그 病機는 대개 氣血의 不能正常運行과 流通으로 皮肉經脈에 失養한 所致이다.

마. 診斷

麻는 皮膚나 肌肉의 發麻를 가리키는데 그 모양이 非痒非痛하고 蟲蟻가 속에서 亂行하는 것 같고, 木은 肌膚가 木然하고 頑而不知한다 두가지가 同時에 并見함으로 麻木이라 合稱한다 麻木은 일반적으로 四肢에 많이 생기나 혹 手指 足指나 面部一側이나 舌根 등 부위에도 생긴다 임상상 근거로 以上の 發病특징을 진단함이 어렵지 않다.

바. 辨證論治

一. 辨證

(一) 辨證要點

1. 新舊虛實辨

일반적으로 新病은 多實, 舊病은 多虛하다. 麻木實證은 外感風寒濕邪나 在裏之濕痰瘀血이 경맥과 氣血을 막아서 생긴다. 風寒濕瀉로 인한 것은 왕왕 麻木과 疼痛이 함께 보인다 일반론으로 風濕은 인체 上肢 부위를 많이 침범하여 麻木不舉하고, 寒濕은 下肢를 많이 침범하여 腿脚木重한다 痰濕은 頭昏頭重이 많고 胸痞腹脹하고 風痰은 麻木이 口舌에서 많이 보인다. 肢麻 頭暈 耳鳴 目赤한 것은 肝風夾痰火上沖之候이다 瘀血의 特點은 麻木이 有定處함이고 濕痰과 瘀血의 相合하면 局部에 痛痒을 감각하지 못하고 陰寒을 만나면 더욱 심하고 혹 日輕夜重하다.

本病虛證은 氣虛 血虛 혹은 氣血兩虛에 속하는 것이 많다 다만 氣虛하면 대개 血虛에 이른다. 또 왕왕 痰瘀의 원인이 된다 임상에서는 마땅히 자세히 辨別하라.

2. 辨病情輕重

麻木이 비록 一證이나 二者간에는 一定한 구별이 있다 麻는 發麻感을 가리키고 局部에 항상 一定한 知覺이 있다 木은 局部에 知覺이 失去한다. 그래서 麻輕木重이고 麻爲木之漸이고 木爲麻之甚이다 病理上 麻는 多屬氣病이고 氣虛爲本 風痰爲標이고 木은 多爲氣病及血이고 또 濕痰死血이 많다

3 辨發病部位

麻木이 在上肢한 것은 多屬風濕 혹은 氣虛夾痰이고 在下肢한 것은 寒濕 濕熱이 많다. 兩脚麻木 局部灼熱腫脹한 것은 濕熱下注에 속함이 많다 頭面發麻 혹은 木하고 痛痒을 지각하지 못함은 대개 氣血虧虛에 風邪가 乘之함이고 구안와사가 보이기도 하니 面部一側이 抽搐하는 症狀이다

指端麻木은 대개 氣虛와 內風夾痰이다. 口舌麻木은 대개 痰濁에 屬하며 絡脈을 막는다 渾身麻木은 대개 營分이 阻滯하고 衛氣가 不行함이다

(二) 證候

1 氣虛失運

① 症狀

手足에 發麻하여 벌레기듯하고 面色晄白하고 自汗畏風 短氣乏力 倦怠嗜臥 懶于行動 言語無力 易于感冒 食少 大便稀溏 혹은 先乾后溏 次數增多 舌質淡 舌體胖大 邊有齒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痕 苔薄白 脈弱

② 病機分析

氣爲血之師이니 氣虛하면 鼓動無力하고 血滯不利하여서 麻木이 되는데 四肢는 諸陽之本이니 四肢에서 많이 보인다. 面色晄白하고 形體虛胖함은 氣虛의 특징이니 倦怠乏力 嗜臥 自汗畏風 食少 便溏하니 모두 脾肺氣虛之象이다

氣虛하면 衛外기능이 減弱하는 소치로 外邪侵入이 쉬워진다. 또 혈액 運行 運化水濕을 拍動하는 힘이 無力하여 血留爲瘀 濕聚爲瘀하니 氣虛而夾痰 所以이고 兼瘀하면 복잡하다.

2 血虛不榮

① 症狀

手足麻木 形瘦色者 面唇淡白無華 眩暈 心悸 失眠 瓜甲不榮 舌質淡 脈細하다

② 病機分析

血虛하여 頭目を 滋養하지 못하고 上榮于面하지 못하여 眩暈 面唇淡白無華하고 血不榮心하면 心悸失眠하고 經脈失于濡養하는고로 瓜甲不榮하고 手足發麻한다

3 風濕痺阻

① 症狀

장기적 점진적으로 肢體 關節肌肉이 疼痛 麻木 重着하며 陰天雨濕을 만나면 심해진다 혹 發作性劇痛을 보이고 局部에 喜暖惡寒한다 病이 오래되어 入深하면 왕왕 關節不利 麻木不仁으로 나타나고 疼痛은 오히려 극렬하지 않고 심지어는 不痛하기까지 한다. 舌質은 多淡하고 苔는 薄白 혹 白膩하고 脈沈遲하고 風寒濕邪가 郁久化熱하거나 濕熱入絡하고 局部腫脹 灼熱 疼痛 麻木하고 舌質多紅하고 舌苔黃膩 脈細數或滑數하다.

② 病機分析

風寒濕이 습하여 阻閉營衛해서 氣血의 정상적 유통을 막아서 출현하는바 疼痛 麻木 重着 등 증상도 있다 病久入深하면 外邪와 痰瘀互結 營衛之行이 愈滯하고도 麻木疼痛이 같이 보이거나 麻木이 主가 된다 風寒濕邪가 郁久化熱하거나 혹 濕熱이 相습하여 經絡에 흐르면 麻木 疼痛 腫脹 灼熱 등 증이 보인다

4 痰瘀阻滯

① 症狀

麻木이 오래되면 혹 한곳에 固定되거나 혹 痛痒을 전혀 못 느낀다. 舌上에 瘀斑이 있고 舌苔는 滑, 膩하고 맥은 沈滑 沈澁하다

② 病機分析

麻木이 오래되면 木重于麻한 것은 대개 濕痰瘀血에 屬하는데 한 곳에 固着하여 營衛之氣로 하여금 잘 통하지 못하게 하는 소치이다. 乏力少氣, 自汗畏風 등 증이 함께 보일 것 같으면 氣虛에 瘀와 痰을 겸하는 것이고 脈이 細澁하고 頭目眩暈 心悸失眠이 함께 보일 것 같으면 血虛에 瘀와 痰을 겸한 것이다. 心主血 開竅于舌임으로 瘀血이 병이되면 舌上에 紫暗色瘀斑瘀點이 多見하고 맥狀이 沈澁하다 舌苔가 滑膩하고 맥이 沈滑하면 대개 風痰이나 濕痰이 內阻한 것이다.

(三) 治療

1 治療原則

麻木은 氣血의 病變爲主이고 虛症이나 虛中夾實症이 많은 까닭에 그 치료는 調補 氣血 助衛和營 爲主로한다 다만 麻木에 外邪 瘀血 濕痰과 관련 있어서 특별히 久麻 久木하고 不知痛痒하면 대개 因虛而致實한 것이다 前人이 이미 명확히 밝힌 바 있듯이 濕痰이 병이 된 것은 有形之邪도 阻于經隧하는 고로 마땅히 疏通을 먼저 한 후 邪가 消退한 것을 기다려서 기혈이 점차 流通될 때 다시 調補하는 것이 좋다. 正虛邪實하면 補瀉合劑를 쓸 수 있다

종합하건데 치료상의 주의할 점은 新舊虛實 標本緩急을 고려하여 구체적 情況을 근거로 치료방침을 세워야지 一法一方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2 治法方藥

① 氣虛失運

a 治法

補氣實衛 위주로 한다

b 方藥

補中益氣湯을 加減하여 쓴다 이 방은 補氣升清之功이 있으니 氣壯하면 血行하여 麻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方中의 參芪를 重用하여야 효과가 확실하다. 黃芪益氣湯 계통은 이 方에 黃栢 紅花를 加하여 이뤄진 것이니 한 가지는 抑降陰火하고 한 가지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는 活血散瘀하여 氣虛麻木에 쓰기 좋게 한 것이다

陽虛에는 補中益氣湯에 桂枝 制附子를 加하여 陽氣를 돋군다 脾虛濕盛 食小便澇 兩腿沈重麻木에는 除濕益氣湯을 써서 升陽益氣除濕한다

여름에 手指麻木 四肢乏力 困倦嗜臥하면 人蔘益氣湯을 쓴다 氣虛에 痰을 겸하면 補中益氣湯合二陳湯을 쓴다 痰盛하면 먼저 淸州白丸子나 止麻淸痰飲을 먼저 써보고, 不效하면 礞石滾痰丸을 참작하여 쓰고 控涎丹에 桃仁 紅花를 加하여 祛風痰 通經絡하여 痰이 十中之七이 去하기를 기다려 다시 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調補하라. 氣虛兼痰에는 黃芩赤風湯을 常用하고 補陽還五湯 등으로 補氣行瘀한다

② 血虛不榮

a 治法

養血和營爲主로 한다.

b 方藥

常用四物湯을 기본방으로 하고 丹蔘 秦艽 紅花 鷄血藤을 加하여 活血通絡作用을 증강한다 血虛液燥하면 加 何首烏 枸杞子 沙苑 熟地黃한다 病在手하면 桑枝 蒺藜를 加하고 病在足하면 加 牛藤 木瓜한다

血虛한데 風寒이 덮쳐 手足이 麻木疼痛하면 當歸四逆湯을 常用하고 혹 桂枝湯加 當歸紅花로 溫經活血하고 血虛에 風濕을 겸하면 神應養眞丹이 좋다.

木重于麻는 病的 早期에 많은데 陽氣衰微하여 血行을 不能鼓動하면 益氣養血 和血方에 加 桂枝 附子하여 通陽開痺하고 陽氣를 돋구면 氣가 旺해져 血行하고 麻木이 낫는다 일반적인 氣血兩虛麻木은 黃芪桂枝五物湯 쓴다 方中の 黃芪는 補氣益衛하고 芍은 和榮하고 姜棗는 脾胃之氣를 돌려 藥力을 發揮하게 한다 肝腎不足을 겸하면 養血熄風之品을 참작하여 더하는데 구기자 백질려 沙苑子 천마 등이며 단삼 계혈등 홍화 오가피 등 活血通絡약을 겸용한다 陰虛動風으로 引한 麻木은 滋養肝腎을 치료의 本으로 하고 平肝熄風 通絡化痰을 標로 한다. 天麻鉤藤飲을 常用하고 鎮肝熄風湯等方에 稀稬초 노관초 상지 지룡을 加하여 通絡하고 痰盛하면 二陳湯을 合하고 죽력 원지 석창포를 加한다 火降熄風을 기다려서 填補爲主하는데 地黃飲子 四斤丸 虎潛丸을 常用한다 形盛多痰에는 健中化痰之劑를 參用한다.

中年以上으로 形盛之人이 中指食指에 發麻하면 대개 中風先非인데 祛風發表를 남용할 수 없으니 損傷眞氣를 면하기 위함이다 桑枝膏丸을 써서 滋養肝腎 活血通絡하

■ 痿, 厥, 痲木에 대하여

다. 濕熱이 偏重하면 加창출 황백으로 燥濕淸熱하고 氣虛하면 加 황기한다 아울러 전갈 지별충 백화사 등 蟲類약물을 적당히 加하여 搜剔通絡하면 치료효과를 높인다.

頑痰이 結聚하고 形盛色蒼하고 體壯脈實之人은 공연단을 쓸 수 있으니 계지 강황 전갈 도인 홍화 강즙을 가해 써서 功逐하라 體虛邪實하면 重劑로 克伐하지 못하니 指迷茯苓丸을 가감하여 쓴다

口舌痲木은 대개 痰火에 속하니 止麻消痰飲을 쓸 수 있다 方中の 반하 복령 진피 세신은 化痰行氣하고 팔루 황국 황련은 淸化熱痰하고 길경 지각은 氣機升降을 調理하고 천마는 平肝熄風한다. 기허하면 인삼을 酌加하고 혈허하면 당귀 백작약을 加하라.

顏面痲木은 風痰阻絡에 속하니 견정산을 常用하고 백지 방풍 구등 오공을 가한다 血瘀를 겸하면 도홍사물탕을 습한다 겸해쓰는 外治法은 천궁 방풍 박하 강활 전탕에 수건을 적셔서 하루 2~3차 蒙頭熏之 하라.

3 其他治法

가. 單方驗方

① 노관초 희렴초 계혈등 낙석등 석남등 해풍등 녹충초, 관근등 천년견 상지 인동 등에서 그중 2~3味를 골라 每味 30g씩 水煎服

상기 약초들은 모두 活血通絡 祛風逐濕하고 또 명현 등 부작용이 없으니 여러 유형의 痲木에 單用 혹 2~3味를 配用하거나 辨證方藥에 加해 쓴다

② 노관초流浸膏 1일 3회 매회 10~15ml

③ 계혈등片 1일 3회 매회 4~6片

④ 희동환(희렴 팔각 오동) 1일 2회 매회 8片

⑤ 희하환(희렴 하고초) · 1일 3회 매회 1~2丸

⑥ 風濕骨痛酒(노관초 정공등 상지 희렴초) · 1일 3회 매회 10ml

⑦ 蚕砂 60~120g 蒸熱慰患處

⑧ 해동피 계지 강황 강활 독활 송절 로로통 유기노 투골초 홍화 당귀 각 15g 酒水各半煎用 乘熱浸洗 매일 1~2회

⑨ 백개자 研末 姜葱汁調敷患處

나 針灸

침구는 마목에 유효한 치료법이다 다만 변증논치적 원칙에 근거하여 허실보사

법을 운용한다. 麻木하는 部位를 循經을 따라 選穴한다

上肢 - 합곡 곡지 견우 견정 외관 태연 척택

下肢 - 풍시 음릉천 곤륜 현중 족삼리 삼음교

4. 轉歸及預後

麻는 木의 始요, 木은 麻의 甚이다 이 증은 초기에 麻가 主症이 되는 것이 많다 때맞춰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가 적당하지 않으면 麻가 木에 이른다. 木때문에 행동이 불편하기에 이르고 甚하면 癱瘓不起에 이르니 조심해야 한다. 이른시기에 확실히 알아 조기치료를 확실하게 하면 예후가 일반적으로 양호하다

5. 預防과 調理

때맞춰 휴식을 취하라 음식을 절제하고 肥甘厚味를 과식하지 말아야 痰으로 動風함을 면할 수 있다.

心淸을 유쾌하게 유지하며 鬱思腦怒를 피하라.

체육활동에 힘쓰되 보건체조 태극권 팔단금 跑步 등으로 體質을 增強하고 氣血이 流暢하게 하라.

중년이상 특히 살찐 체형의 사람은 食指 中指 혹 舌根麻木을 잘 살펴 때맞춰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중풍발생을 예방하라

麻木이 陰天兩濕에 심해지면 保暖防潮에 주의하고 局部를 焄으로 떠라. 혹 의사 지도하에 熱慰 熏洗 등 藥物 外治法도 써라

6. 現代研究

본병의 현대연구와 관련하여 본서의 유관 篇章을 참고하라 老中醫의 마목치료경험으로 辨證 選方 用藥 등을 참고할 것을 중점 소개한 것이다.

가. 痺證麻木

痺症은 新舊虛實이 다르므로 調和營衛 疏經活絡을 함께 쓰는 것이 痺證麻木의 요점이 된다.

蒲氏가 말하기를 風濕痺證은 陽虛多痰에 屬하고 上肢麻木은 調和榮衛위주로 하고 겸하여 祛風利濕하는데 方은 황기건중탕 옥병풍산加 천마 강활 진교 상지 진피 등을 쓴다

岳美中은 痺證麻木疼痛은 風寒濕이 함께 작용하여 氣血이 滯하면 先通後補가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마땅하고 疏經活血通絡方(의의 상지 絲瓜絡 천초 모과 몰약 울금 향연피 천련자 佛手 회우슬 로로통 목통)으로 病減之後에 三痺湯을 이어서 쓰고 최후에 滋腎養肝方(사물삼 모과 우슬 아교 음양곽 산수육 오미자 회우슬 妙의의인 산약 옥죽 구기자 황정) 써서 효과 볼 수 있다고 한다.

나. 中風麻木

越錫武가 이르기를 中風치료는 3단계로 나누는데 제1단계는 開關取嚏하여 蘇醒하게 하고 제2단계는 再造丸을 매일 2회 1~2日 쓴다 越老가 이르기를 본방은 蟲藥이 많아서 植物神經機能失調를 조절할 수 있고 養血藥이 들어 있음은 化瘀通絡作用도 있음이다 祛風藥이 포함된 것은 發汗중추를 조절할 수 있어 말초혈관순환과 감각말초 기능을 개선한다. 뇌일혈 때는 경험속명탕을 配할 수 있고 뇌혈전이 있으면 소속명탕을 쓸 수 있고 풍약 熱약을 不必畏忌하나 병증만 맞으면 쓸 수도 있다 風약은 혈관기능을 조절하고 건강 부자 육계는 혈관확장작용이 있는 활혈약으로 通絡하여 지체기능회복에 자주 이익이 되더라 하였다

浦輔周는 中風(中經絡)이 氣虛夾風痰에 속하여 半身麻木하는 것을 益氣祛風 理痰通絡으로 치료하려고 황기익기탕 이진탕加 制남성으로 化痰하고 방풍 구등 강잠 전갈 백부자도 祛風하고 當歸로 和榮하고 상지 강독활로 通絡하고 곁하여 再造丸 먹었다

頭暈 震顫 麻木證으로 虛損하면 滋腎柔肝強心益脾로 치법을 삼는데 처방은 四斤丸 守中丸加味熬膏(육종용 회우슬 生木瓜 明天麻 산조인 복령 원지 용치 용안육 구기자 천부자 백출 서양삼 황기 흑두 상지 호골교 귀판교 꿀) 쓰고 痰濕에 속하는 증은 처방으로 溫運中州 化痰柔筋하는데 먼저 도담탕가감(이진탕加 남성 백개자 천마 구등 원지 생강)을 쓰고 이어서 繼進丸方(천마 종용 모과 우슬 法반하 복령 굴홍 백개자 남성 숙부자 호경골 침향 계지 백출 감초) 쓴다.

章次公이 중풍후유로 偏發麻木에 대처한 것을 요약하면

- 榮養療法 - 前人이 “治風에 先治血하면 血行風自灰한다”는 말을 남긴바 있다
- 怖復神經麻痺 - 古人이 이른바 祛風之說에 “당귀 수오 우슬 구기자 백작 사원 아교 한련초 천단 숙지로 補肝腎強筋骨하고 천마 희렴 백작 蝟尾 강잠 낙석등 상지 홍화 대활락환으로 疏風活絡하라”

다 血痺麻木

岳美中은 産後大失血 血痺 全身麻痺에 황기계지오물탕 옥병풍산 쓰고 이어서 三痺湯을 써서 養血補氣위주로 하고 뒤에 인삼양영환을 썼다 다른이는 血脾로 頑麻가 특징이 되는 것은 風痺와 달리 頑麻와 疼痛이 고루있고 또 역절풍과 달리 疼痛은 있으나 頑麻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미 血痺가 된 것은 風痺처럼 表散으로 치료할 수 없고 역절풍처럼 溫通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 補衛和榮을 주로 하고 이어서 和陽養陰하고 끝으로 養血補氣法을 쓴다

라. 顏面神經麻痺

① 蒲氏의 경험

이증은 風痰郁閉經絡이居多한데 祛風을 위주하고 化痰活血로 佐하는데 처방은 백부자 방풍 강잠 백지 세신 천남성 강활 전갈 천마 천궁을 탕제나 환제로 쓴다.

② 黃氏가 이르기를 구안와사 반신불수는 대개 血脈痺阻 經墜不通에서 유래함으로 活血祛瘀 위주로 하고 平肝熄風潛陽 化痰通絡을 배합하여 당귀 작약 도인 홍화 우슬 상기생 모과 指迷茯苓丸 희림 槐米 산양각 계혈등을 常用한다. 바뀌서 말하면 風中經絡에 보양환오탕을 쓸 수 있는데 다만 血壓이 偏高하고 筋脈拘攣하면 肝陽이 平해진 뒤에야 보기약을 쓸 수 있으니 황기는 早用 重用하지 말라.

③ 李氏가 이르기를 안면신경마비의 허증은 대개 血虛精虧之體에 속하는데 風邪를 感受하여 경락에 맞은 것이다. 먼저 당귀 진교 계혈등膏 상엽 강잠 백작 굴絡 감초 등으로 養血祛風하고 이어서 팔진탕 육미지황탕을 가감하여 補氣血肝腎하라.

마. 脚氣麻木

각기병은 요즈음 별로 없는데 건각기, 습각기가 다르고 초기에 모두 麻木위주로 증상이 나타난다

章氏는 건각기마목을 치료하는데 常用하기를 養血和血 위주로 사물탕加 모과 우슬 의의 赤豆 빈랑으로 爲方하고 습각기마목에 常用하기를 溫陽燥濕利水하려고 창출 부자 행인 의의 복령 택사 생강 상백피 세신 오수유 冬瓜子皮 차전자 등을 썼다 上二方은 모두 요령을 터득한 것이니 삼가 참고하기 바란다.

사. 結 論

麻木은 人體 氣血 經絡의 病變이다 氣主煦之 血主濡之라 하였으니 氣虛失運과 血虛不榮이 麻木의 중요한 內因이고 風寒濕邪의 침입 痰濁瘀血의 互結로 阻于經墜하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여 氣血의 流通에 영향을 끼쳐 麻木을 발생한다

麻木의 임상에 輕重의 구분이 있는데 麻는 처음에 肢體에서 發麻하고 木은 局部에서 知覺이 消失하여 痛痒을 전혀 못느낀다

麻는 木之始요 木은 麻之甚이다 麻는 대개 氣虛不行에 속하고 혹 血虛도 경맥을 不能濡養함이고 木은 대개 正虛에 頑痰死血이 效結한 소치이다.

麻木 한가지 병에 新舊虛實의 區分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新病은 실증이 많고 久病은 多虛中에 夾實하거나 혹 虛위주이다

實症은 風寒 濕熱 血瘀 痰湯의 구별이 있고 虛症은 氣虛 血虛 氣血兩虛 陰虛의 구별이 있다 치료상 허증은 調補氣血 혹 滋養肝腎함이 大法이다. 실증은 祛邪 流通經絡 위주로 하고 虛實互見하면 그 구체적 正虛를 살펴 標本緩急을 구분하여 상응하는 補虛瀉實하는 처방을 쓴다

침구법 藥物外用熱熨 熏洗 등 방법도 麻木의 치료 효과를 提高하는데 쓸 수 있다

▶ 附方

- ① 補中益氣湯(脾胃論) · 黃芪 人蔘 白朮 陳皮 升麻 柴胡 當歸 甘草
- ② 黃芪益氣湯(醫宗金鑒) · 黃芪 白朮 甘草 當歸 陳皮 升麻 柴胡 紅花 黃柏
- ③ 除濕補氣湯(蘭室秘藏) · 升麻 蒼朮 黃柏 黃芪 知母 藁本 生甘草 當歸 五味子 陳皮
- ④ 人蔘益氣湯(蘭室秘藏) : 黃芪 人蔘 甘草 白芍 柴胡 炙甘草 升麻 五味子
- ⑤ 二陳湯(局方) 半夏 茯苓 陳皮 甘草
- ⑥ 青州白丸子(局方) 生半夏 生烏頭 生南星 白附子
- ⑦ 止麻清痰飲(赤水玄珠) · 黃芩 黃連 貝母 瓜蒌仁 茯苓 桔梗 枳殼 橘紅 南星 白礬 皂角 天麻 甘草 細辛 姜汁 竹瀝
- ⑧ 礞石滾痰丸(丹溪心法附余) · 大黃 黃芩 礞石 沈香
- ⑨ 控涎丹(三因方) · 大戟 芫花 白芥子
- ⑩ 黃芪赤風湯(醫林改錯) · 黃芪 赤芍 防風
- ⑪ 補陽還五湯(醫林改錯) 黃芪 歸尾 赤芍 地龍 川芎 桃仁 紅花
- ⑫ 四物湯(局方) · 地黃 白芍 當歸 川芎
- ⑬ 當歸四逆湯(傷寒論) · 當歸 桂枝 芍藥 細辛 甘草 木通 大棗
- ⑭ 桂枝湯(傷寒論)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

- ⑮ 神應養真丹(三因方)：干地黃 白芍 當歸 川芎 羌活 天麻 木瓜 菟絲子
- ⑯ 黃芪桂枝五物湯(金匱要略) 黃芪 桂枝 芍藥 生薑 大棗
- ⑰ 天麻鉤藤飲(雜病證治新意)：天麻 鉤藤 生石決明 山梔 黃芩 川牛膝 杜沖 益母草 桑寄生 夜交藤 茯神
- ⑱ 鎮肝熄風湯(衷中參西錄)· 懷牛膝 生赭石 生龍骨 生牡蠣 生龜板 生杭芍 玄參 天冬 川棟子 生麥芽 茵陳 甘草
- ⑲ 地黃飲子(宣明論方) 干地黃 巴戟 山茱萸 石斛 肉蓯蓉 附子 五味子 肉桂 茯苓 麥冬 菖蒲 遠志
- ⑳ 四斤丸(局方)· 明天麻 六菴蓉 木瓜 牛膝
- ㉑ 虎潛丸(醫方集解) 黃柏 龜板 知母 熟地黃 陳皮 白芍藥 鎖陽 虎骨 干姜 當歸 牛膝 羊肉
- ㉒ 桑枝膏丸(中醫監證備要)· 首烏 枸杞子 歸身 黑芝麻 菊花 柏子仁 白蒺藜 桑枝
- ㉓ 蠲痺湯(醫學心悟) 羌活 獨活 桂枝 秦艽 海風藤 桑枝 當歸 川芎 乳香 木香 甘草
- ㉔ 三妙丸(醫學正傳) 蒼朮 黃柏 牛膝
- ㉕ 獨活寄生湯(千金要方)· 獨活 桑寄生 秦艽 防風 細辛 干地黃 當歸 白芍 川芎 桂枝 茯苓 杜仲 人參 牛膝 甘草
- ㉖ 勝駿丸(三因方)· 附子 當歸 天麻 牛膝 木香 全蝎 棗仁 生熟地黃 防風 沒藥 木瓜 羌活 乳香 麝香 甘草
- ㉗ 雙和湯(雜病源流犀燭)· 桃仁 紅花 地黃 芍藥 當歸 川芎 半夏 茯苓 陳皮 甘草 白芥子 竹瀝 姜汁
- ㉘ 桃紅四物湯(醫宗金鑑) 桃仁 紅花 地黃 芍藥 當歸 川芎
- ㉙ 身痛逐瘀湯(醫林改譜)· 秦艽 川芎 紅花 桃紅 甘草 羌活 沒藥 當歸 靈脂 香附 牛膝 地龍
- ㉚ 指迷茯苓丸(千金要方, 原名「指迷丸」) 半夏 茯苓 枳殼 風化硝 姜汁
- ㉛ 止麻消痰飲(雜病源流犀燭)· 半夏 茯苓 枳殼 陳皮 天麻 細辛 瓜蒌仁 黃芩 黃連 桔梗
- ㉜ 牽正散(橘氏家藏方)：薑蚕 全蝎 白附子

■ 痿, 厥, 麻木에 대하여

附〔現代研究〕主要參考文獻

- ① 中醫研究院編 蒲輔周醫學經驗, 人民衛生出版社, 1976
- ② 中醫研究院編 岳美中醫案集, 人民衛生出版社, 1978
- ③ 中醫研究院編 越錫武醫學經驗, 人民衛生出版社, 1980
- ④ 朱良春 章次公醫案,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0
- ⑤ 馬貴同等 黃文東醫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 ⑥ 李繼昌醫案, 云南人民出版社, 1976

(대전시 동구 가양동 412-8 성심당한약방 ☎ 042-624-2992)